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발간사

홍성선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까지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들에  
어떻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만이 참 하나님이신 사실과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들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이야기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교회 어린이 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내가 믿는 나의 참 하나님을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학생들의 하나님으로,  
교회 어린이들의 참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수 있을까요?

김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계시를 자연과학으로,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한 책이  
좋은 해답입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김명호 목사님과 재림교회의 정체와  
사명을 강조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분이 여러 해 동안 궁  
구하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저런 글을 써 주시도록 청하였고, 김 목  
사님은 늘 청하는 대로 응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명감  
을 가지고 이 책을 써 주셨습니다. 이 유용한 책을 한국연  
합회 목회부에서 발행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 추 천 사

최종걸 박사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북아시아-태평양지회 지구과학연구소 소장

눈앞에 펼쳐진 우주에서 장엄함을 경험한 인간은 자연히 우주의 기원에 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절로, 원래부터 이미 있었다든가, 아니면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귀결됩니다. 전자는 자연주의, 동양 종교, 뉴에이지 등의 주장이고, 후자는 ‘유신론(有神論)’ 또는 ‘이신론(理神論)’의 관점입니다.

처음부터 진화론자의 의견이 우세했던 것은 아닙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에서 자연주의로 세계관을 바꾸면서, 더 이상 우주는 외부의 재조정에 의하여 열려 있을 이유도 없고, 모든 변화는 사물의 본질 내에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는 자연주의자입니다. 이제 과학은 인간 노력의 결과로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통용되니 자연주의는 잘 포장되었으며, 또한 지속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조 사상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퇴색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화

신앙이 진리인 양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심지어 독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진화론으로 인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 이를 고뇌하시던 원로 목사님의 아픔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참된 과학은 성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과학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보인 이 책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필자는 제가 대학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셨습니다. ‘걸어 다니는 성경’이란 별호처럼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옥고를 써 주셨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부모가 된 자들이 먼저 가져야 할 창조신앙과 자녀 교육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매 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인용된 과학적 지식이나 성경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호소일 것입니다.

창조주 없는 분들이 허무와 고독으로 인생을 훑조리고 있을 때에, 성경의 참 진리를 아는 분들은 인생이 살아갈 의미가 풍요롭고, 행복에 충일할 것이며, 이웃과 더불어 ‘자기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장을 위해서도 이 옥고의 기여는 지대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책은 창조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깊은 확신을 줄 것이며, 진화론의 영향으로 아직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분에게는 새로운 패

러다임에의 도전과 함께 ‘진리로 인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먼저 부모님들이, 그리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이 꼭 이 책을 읽어 보시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모르는 이웃에게 이 책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 緒言; 머리말을 대신하여

나는 우리교회 정체성 확립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체(正體), 정체, 말을 할 때에 우리교회 자체의 정체에 중심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교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답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세 가지일 수도 있다.

하나는, 인류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답일 것이다.

다음은, 인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답일 것이다.

셋째 답이 있다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정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도 아니요 짐승도 아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화론은 사람이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하였다고 주장하여서 사람이 사람 아닌데서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아무도 가르쳐준 존재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

이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자기 밖의 어떤 자가 가르쳐주어야 한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며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스스로 정체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안다. 만일 자기 안에서 알 수 있다면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찾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밖에서 자기의 정체를 찾으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서 찾은 것이 고작 아메바에서 많은 세월을 소비하여 진화해서 유인원이 되고 또 많은 세월이 걸려 직립보행 하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 결국 사람은 가까이 말하면 짐승의 후예이고 멀리 말하면 아메바의 후손이 된 것이다.

이쯤 되면 사람에게 생명의 존귀성이나 인권의 고귀성을 찾을 근거는 아예 물 건너 간 것이다. 오늘 온 세상에 인명 경시현상은 바로 인간의 정체를 이런 진화론에서 찾아본 결과이다. 인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며, 부모가 굳이 존경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생존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내가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존속에 방해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선생이든 친구이든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의 생태이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아는 것은 자기 외부에서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에 비로소 알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존재하게 한 그가

나의 정체를 가르쳐주어야 내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된다. 나의 정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는 나보다 먼저 있는 자이며 나의 시작을 알고 있는 자이다. 그가 나의 정체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의 계시적 사실이다.

나의 정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는 나 보다 먼저 있으며 나의 시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시작을 말해 줄 수 있으며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먼저 있는 존재가 가르쳐주는 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그가 가르쳐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나의 정체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런 노력은 도로(徒勞)이며 결코 올바른 자기를 찾아내지 못한다. 자기를 아는 먼저 있는 자의 계시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를 찾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가장 가까이서 말하면 나의 부모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나 보다 먼저 있는 자이다. 사람은 먼저 있는 자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먼저 있는 자가 나를 낳았다고 할 때 그것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 자기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 부모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둘은 상호작용한다. 부모를 알 때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아는 것은 부모를 아는 것이다.

김 아무개라고 말하면 그가 김 씨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김 씨 집안사람이라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만 알고 그 부모나 그 집안을 몰라도 그의 부모가 있고 그의 집안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 그 부모와 그 집안의 존재 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는 것

이며 나아가서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런 연고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 부모는 자녀의 존재 근원이기 때문이다. 효도라는 것은 도덕성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존재성에 근거한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이 도덕적인 삶이지만, 그 근저(根底)에는 존재론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기 존재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자기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 효도는 존재에 대한 공경과 감사와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그런 사상을 노래한 것이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부모 곳 아니면 내 몸이 없을랐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가이 없으렷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같은 가엾은 은덕을 어데 다해 감사오리

이 두 시조는 거의 같은 글이다. 위엣 것은 주세붕의 시조이고 아랫것은 정철의 시조이다. 정철이 후시대 사람이나 주세붕의 시조를 읽고 모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이유를 존재하게 한 사실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보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사상이다. 윤

리와 도덕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출발한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 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이 출발하는 것이다. 결국 윤리와 도덕이 존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계시한다(행17:26).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행17:27). 더듬어 찾는 것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창조었기 때문에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면 최초의 조상에게 이른다는 말이다. 그 조상을 찾으면 그 조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더듬어 올라가면 유인원이나 아메바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람을 창조하신 존귀하고 영광이 충만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과 사실을 십계명에 분명히 새겨놓았다.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나를 존재하게 한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 5계명에서 더듬어 올라가면 제4계명이 된다. 거기는 옛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유를 계시하고 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제칠일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옛새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계시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된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한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를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라고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계시한다(느9:6, 계4:10,11).

만일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실 현대의 인류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억지로 찾은 존재 근원이 겨우 아메바요 유인원이다. 정말 성경이 계시한대로 “존귀에 쳐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시49:20).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하는 짐승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세상을 세뇌시켜온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진실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이 인류의 정체성이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실인가.

성경은 때가 되었을 때 세 천사의 기별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호소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서 그 진짜 부모를 찾아 공경하라는 기별이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무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그 교인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찾은 것은 우리만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인류자체의 정체성을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두려고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그 나라에 함께 가게 하자고 하신 그 사랑을 증거 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확립하지 않고 되겠는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일은 참으로 마땅히 행할 길인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 연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진화론적 발상으로 도배된 교육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는 확실함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는 필자가 이런 글을 초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럴 때 따뜻하게 도움말을 주신 여러분들이 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다.

이규봉 교수는 정독을 하고 여러 합당한 조언을 주었다. 필자는 그것을 귀중하게 참고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최종걸 교수의 수고로 일본에 유학중인 이원배 박사에게까지 수고를 끼쳤다. 이 박사도 아주 꼼꼼히 읽고 합당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조언을 필자도 꼼꼼히 참고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는데, 이 박사는 문장을 친히 써서 수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그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옮겼다. 이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이 박사의 조

언 중에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필자의 얇은 과학적 지식 때문에 그의 조언을 그대로 다 적용하지 못한 미안함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걸 교수의 부인 김연희 여사는 이 원고를 자세히 읽고 일일이 문장과 부호를 교정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다.

특히 최종걸 교수는 절판되어 구하기 힘든 책을 복사해서 보내주었고, 윤종태 교감은 친구들에게 수소문하여 책을 찾았습니다. 깊은 감사를 전한다.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얻은 것 외에, 인터넷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 글들을 올린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네이버, 다음, 야후 등등에서 많은 재료를 빌려왔으며 참고하였다. 필자의 부주의로 그 출처를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한 허물의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또한 『성경과학백과』, 『 $E=mc^2$ 』, 『고뇌를 극복하는 길』 등에서 많은 재료를 빌려 썼다. 이런 책들을 인하여 감사한다. 아울러 본문 안에 일일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양해도 구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우리 재림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튼튼한 기초가 놓이는데 일조하고 교회가 정체성을, 성경이 계시한대로 확립하여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에 매진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추천사를 써 주신 최종걸 교수와, 한국연합회 목회부장이신 홍성선 목사님과 그 외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출판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

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장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와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드린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6년 5월 5일 어린이 날  
주의 종 김 명호 識

## 목차

발간사

추천사

緒言; 머리말을 대신하여

제1장 마땅히 행할 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1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제2장 현대교육의 근저

제3장 창조주를 이치에 합당하게 가르침

제4장 성경의 계시와 자연과학

제5장 성경에 설명된 자연 현상들

1 광합성 작용 롬8:16

2 땅을 공간에 매어닮 롬26:7

3 기압계와 바람의 무게 롬28:25

4 전파와 번개 롬38:35

5 천문학과 성경의 별 이야기

1) 별의 수효에 대하여 렘33:22

2) 묘성의 떨기 롬38:31

3) 삼성의 띠 롬38:31

4) 대각성과 속도 롬38:32

6 비가 오는 원리 롬36:27

7 인터넷과 시19:2,3

8 상대성 원리 시33:6

9 진화론 시49:20

10 태양광선 치료 말4:2

11 패러데이와 롬11:36

제6장 건강에 대한 말씀

1 전염병과 격리

2 할례와 건강

3 몸을 셋어라

## 제7장 역사 예언과 그 성취

1 예언과 신앙

2 예언과 역사

1)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하여

2)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

## 제1장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교육126). 그러므로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림성도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웠더라면 진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 안에서 살며 충실히 살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재림성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르치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이제라도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늦었을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부모에게 또는 삼육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그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그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면 곧 도덕적인 행위규범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마땅한 행실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세속적인 사상이나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열심히 읽으며, 교회 출석도 잘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고 바르게 지키며,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친

구들과 우의 있게 지내며, 학교에서도 모범 학생이 되는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위에 나열한 것들도 마땅히 행할 길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삼강오륜을 가르쳐서 행실을 바르게 하도록 엄격하게 교육해왔다. 옛날에는 그런 엄격한 교육이 어쩌면 지금보다는 자녀들에게 잘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날 세대는 부모의 교육보다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받는 교육의 영향이 더욱 크다. 학교 교육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의 바람이나 학교의 인성 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성도들은 더욱 각성하여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근본적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의 이성적 판단이 아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 생각이 사람보다 하늘 만큼 높으신’(사55:8.9)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그 길을 평생 걸어가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 그것이 무엇인가

“너는 청년의 때 곧 곧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며 마땅히 행할 길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곧 늙었을 때에도 창조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재림성도들, 곧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남은 자손들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내용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14:7)는 말씀을 따라 그 창조주를 확실히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인 줄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그 토대 위에 성경이 계시한 여러 진리를 쌓아야할 것이며 창조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사람이 되어 그 생명이 나타내는 생태를 확실히 드러내는 삶이 살아져야 할 것이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그 마지막 말씀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4:5,6)고 하였다.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고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은 역사의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이다.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마지막 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괴리(乖離)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방을 위하여 당부하신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들은 물론 자녀들도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철저히 훈련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에 대하여 계시한다. 창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시한 근본적인 마땅히 행할 길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바르게 기억하기 위하여 잠시 시간을 내어 여호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사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새기는 것은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1)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고 강조한다. 여호와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모르면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시 36:9). 주 여호와가 곧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하며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호소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4:6).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출3:14).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 존재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여호와 외에는 어떤 존재든지, 그것이 천사, 사람, 우주인이든지, 짐승, 초목, 바위, 흙, 물이라도 다 여호와 하나님 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존재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기 밖(外)에 있다. 오직 여호와라 이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가까운 원인은 부모님이시다. 그러나 그 원인의 원인의 기원을 계속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최초의 원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는 대답이다. 만일 스스로 계실 수 없는 존재라면 그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계실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계22:13), 그러므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약1:17) 이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방법을 이름

으로 발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있는 자”이시다.

## 2)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複數) 존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원어에는 “엘로힘”인데 복수이다. 단수(單數)는 “엘” 또는 “엘로아”이다. 엘로힘이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약 2,500번 정도 쓰였다. 이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로 신(神)이라고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불례셋 사람들의 신(엘로힘)은 다같이며, 모압 사람들의 신은 몰록이다. 이처럼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에도 엘로힘으로 썼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엘로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밝혀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存在)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복수로 계시(存在)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뿐(唯一)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28:19).

이 말씀에서 이름을 가지신 분은 셋이다.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낱말이 복수(複數)가 되어야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름’은 단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하나뿐이라는 말이다. 그 하나뿐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다 여호와이시며, 이 뜻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  
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 수 있겠는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11:7,8).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해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한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29:29).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하여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내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무리한 추측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라는 신학(교리)적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을 머리는 셋인데 몸뚱이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부부일체(夫婦一體)라고 할 때에 남편과 아내의 몸뚱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행사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도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몸뚱이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다. 백성에게 임금이, 제자에게 스승이,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권위와 위치가 동등하다는 말이다. 그처럼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뜻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래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구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각각 맡은 업무(?)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런 구분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원래는 모두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 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 3:22,23).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다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내어보내셨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사단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신 분은 다 선악을 아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실한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둘이라고 하시는 복수 존재로서 여호와이심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6:4)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더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이 말씀은 절대 단일 존재라는 말이 아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복수 존재, 곧 우리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그분들만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는 유일하시다는 말이다. 온 우주에 그 세분 외에는 여호와가 없다는 말씀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뚫으며 땅을 베풀었고”(사44:24).

이 말씀은 창조하는데 여호와와 함께 창조한 다른 존재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만일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이 말씀대로라면 함께 한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여호와 외에는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만일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한 존재가 있다면 그 분도 여호와일 수밖에 없다. 여호와가 아니면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계시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으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1-3). 지은 것 중에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계시하신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요1:14).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은 것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실 수밖에 없다.

또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104:30)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욥33:4)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성령도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시니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일에는 여호와 외에 함께 한 이가 없이 여호와 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는 온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뿐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이다.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말씀은 절대 한 분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들만이 유일하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인(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복수로 기록하였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2:1). 여

기 창조자라는 원어는 복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분들이 바로 온 우주에 그분들 외에는 자존자(自存者)가 없는, 자존하신 분으로서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이다. 그러나 그 여호와는 세 개체이시다. 그래서 창조자들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지만 삼위가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또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하여 만든 말이다. 그것은 여호와, 곧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모두 스스로 존재하셨다, 온 우주에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이 세 분뿐이다 라는 뜻이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신성이 세 개체로 계신다고 말한다. 이 말은 한 여호와께서 세 개체로 계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더 자세히는 삼위 한분 한분이 다 여호와로 계시된 말씀들을 찾아보면 더 확실할 것이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신32:6).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에는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

이 말씀은 구원자가 여호와라고 계시한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 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 라 하였더라”(행4:12).

그러므로 구원자 여호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칭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야 43:11은 구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계시한다.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시겠는가?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계시하시지 않았는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 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사32:15).

위에서 부어주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되게 하는 것은 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계시한다. 비가 오는 것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의 표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 늦은 비로 임하시는 여호와는 성령이심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찾아본 대로 아버지 여호와가 계신 것을 확인하였다(신32:6). 그런데 또한 남편 여호와가 계신다

고 성경은 계시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사54:5).

아버지 여호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부른 곳은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없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남편 여호와는 예수님이신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다. 이런 진리도 어릴 때부터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설명 외에도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여호와이시며,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성경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큼만 말하려고 한다.

위에 이사야 44:24과 함께 이 설명들을 익숙하게 이해하면 삼위일체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이 설명이 유익을 주기를 바란다.

## 제2장 현대교육의 근저

현대 교육은 진화론적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진다. 자연과학계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과학계의 교육도 다 그 기초가 진화론적 사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역사 교과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진화론으로 시작한다. 진화의 최후의 상태가 오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며 그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 시대를 열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교육 전반에 진화론적 사상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삼육학교에서도 대부분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하여 기술된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성경의 계시와 맞지 않는 내용을 교사들이 걸러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이론의 근저(根底)에 진화론의 영향이 서리어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밑바닥에 서린 진화론의 영향은 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은근히 스며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교사들 역사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교육적 상황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애써 가르치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실을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과서를 배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것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하여 배우는 것들이 더 믿

을만하다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들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교과서는 자연과학교과서나 인문과학교과서나 대부분이 그 기초가 진화론적 세계관이다. 이런 바탕에 근거하여 정립된 이론을 논리에 맞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무리 어릴지라도 논리적인 가르침에 더 신뢰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 제3장 창조주를 이치에 합당하게 이해하게 함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아이들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가르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막연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는 생각이 배어들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불신이 얹게 배어 있다가 학교에 가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접하면 이치에 맞은 논리로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아주 쉽게 믿으며, 집에서나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버린다. 아니,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는 이론을 만든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치에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이 쉽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부모와 교회의 교사들은 기도하며 지혜와 방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늙어서도 창조주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다.

어떻게 이치에 합당한 논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이들을 가르칠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믿는 자연과학의 여러 발견들이, 자연과학이 그것을 발견하기 오래 전에 성경에 이미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논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 기록된 것이 기원전 1,500년경이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기원 96년경이다. 이때는 과학적 발견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이다. 그런데 기원전 1,500년 경에 기록된 성경인 육기와 기원전 1000년경에 기록된 시편 등, 구약성경에는 자연과학이 17세기 이후에야 발견한 사실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재림성도인 부모님들과 교회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찾아서 자연과학이 발견한 때와 비교하여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오래 전에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가르쳐주셨기 때문임을 가르쳐준다면 아이들이 합당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천연계의 현상을 묘사해 놓은 것 중에, 과학적 발견 이전에 인간의 지식이 미쳐 닿기 전에 조차도 오늘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 지적함으로써,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초(抄)하고 있는 것이다.

## 제4장 계시와 자연과학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이시다. 참된 모든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조화된다. 참된 모든 교육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케 한다. 과학은 우리의 시계(視界)에 새로운 경이들을 열어주고 희망을 용솟음치게 한다. 새로운 깊이를 탐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배치되는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무지한 사람이 과학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견해를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빛을 비추어 준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당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잘 알려준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명하고 자비하신 법칙들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사인즈 1884. 3. 20).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행17:24), 그 하나님이 계시해주셔서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천연계에 대한 말씀과 천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연적 현상들의 법칙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천연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계의 현상을 바르게만 깨달으면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기한 솜씨를 발견할 수 밖에 없다.

성경은 땅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물고기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욥12:7-9).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그냥 자율(自律)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돌보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된 상태를 항상 올바르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셨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시119:89-91).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고 그것들이 그 법칙을 잘 지키기 때문인데, 그것들이 법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손을 늦추시면 우주는 와해(瓦解=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이런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날마다 돌보

시는 일도 하신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  
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이것들이 다 주께  
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  
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  
족”(시104:14, 27, 28)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연계의 현상들을 바르게 연구하면 천연계의  
현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과학을 연구하기 때문  
에 자연과학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결과로 진화론이 출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사  
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 준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  
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  
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평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질 사람과 금수와 벼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벼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  
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롬1:19-25).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도 사람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자기 밖에서(外部) 받은 것뿐이다.

우리는 몸도, 생명도 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 이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도 듣고, 읽고, 배워서 얻은 것이지 스스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모두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려고 한다. 얼마나 미련한가!

한술 더 떠서, 다른데서 받은 그것으로 그것을 준 것들을 비판하고 매도하기를 밥 먹듯 한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와 상관없고 자기가 표준이 된 듯이 행세하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愚蠢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새와 벌레와 사람 형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급전직하(急轉直下) 벌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기껏해야 사람이 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고전4:7).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존재와 생명, 지식과 인격, 이 모든 것을 다 나 이외의 존재에게서 받은 것이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의 극진한 돌봄 중에 성장하고, 학교에 다니고, 사람을 사귀고, 책을 읽으며, 이것 저것 배우고 알게 된 후에 마치 자기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매도한다면, 이웃과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인류는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해도 사회는 그것을 당연하고 맞는다고 맞장구를 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된 세상인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17:26-28).

참된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 섭리하시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말씀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기 오래 전에 이미 자연과학이 발견한 사실들과 일치하는 묘사들을 찾아보면 과학이 발견한 사실들이 이미 계시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확신의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제5장 성경에 설명된 자연현상들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상식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서 설명한 자연현상과 대조하여 보려고 한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우리 재림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 원고를 읽어 본 한 과학자는 여기 기록한 사실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언어와 지식으로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과학적 사실을 설명한 책들이 많다고 하였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책들은 그런 책대로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된 자연과학적 사실을 묘사하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상식적인 과학적 사실들과 대조함으로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성경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 1 광합성작용에 대하여

광합성작용이란 녹색식물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광합성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며, 최근에 와서야 그 중간대사(中間代謝) 과정이 자세히 밝혀졌다. 즉, 고등식물 · 양치식물(羊齒植物) · 조류(藻類) 등의 녹색식물이나 광합성 세균이 빛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당류(糖類) 등의 유기물을 합성하는 탄소 고정의 한

형식이며, 이때 산소를 방출시켜서 모든 동물들의 호흡 작용을 도와준다.

에너지를 중심해서 말한다면, 광합성은 태양의 복사(輻射) 에너지를 유기물인 화학에너지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얻어진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생장 등 생명현상을 영위(營爲)하는데 사용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광합성에서 얻고 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지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빛은 생명현상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성경은 생명과 빛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취려 하심이니라”(욥33:30).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1:4).

이 말씀들은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인류 생활의 실상에 있어서도 태양빛은 생명현상과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과학도 빛이 생명현상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한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다. 광합성작용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야 빛이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18세기 초 이전까지는 식물은 토양(土壤)으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얻는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까지 진리로 생각되고 있던 식물 생장에 관한 가설로서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도 다른 양분과 같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것으로서 토양 속에 다량의 탄소를 함유하는 부식토에 있는 어떤 물질이 식물의 탄소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빛과 물이 식물의 자양분이 되고, 또한 식물을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은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하였다.

그런데 식물 생리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계획하여 연구한 사람은 헬몬트(Helmont, J. Van 1577?~1644?)였다. 그는 탈레스(Thales)설에 따라 “물은 만유의 근원”이라 생각하였고, 모든 것은(금속과 암석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그리고 광물질도 물로 만들어져 있으며, 식물은 물을 가지고 식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이런 실험을 하였다. 완전히 말린 흙을 90kg 쯤 화분에 넣고, 2kg의 베드나무 가지를 심은 뒤, 이것을 덮어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놓고 매일 물을 주었다. 이렇게 하여 5년이 지난 후에 크게 자란 베드나무의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76kg이나 되었다. 그러나 다시 흙을 완전히 말려서 달아보니 겨우 56g만 줄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험의 결과를 계산하였다. 나무의 무게 76Kg에 베드나무의 처음 무게 2Kg을 빼고, 거기에다 줄어든 흙의 무게 56g을 빼니, 73.944kg이었다. 그러므로 불어난 나무의 무게 73.944kg은 결국 주어진 물이 변화하여 생긴 것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리고 한 200년 쯤 후에 산소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영국의 성직자이자 화학자인 프리스틀리(Priestley, J. 1733~1804)가 불태우는 것과 숨 쉬는 데에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며 그 결과로 공기를 변화시켜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초를 계속 태워 꺼질 정도로 탁해진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유리종 안에 잎이 붙은 나뭇가지를 넣어 두었었는데, 10일 뒤에는 그 공기가 양초를 태울 수 있도록 맑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생쥐의 호흡으로 탁해진 공기 속에 식물을 넣어 두었더니 역시 위에서와 같이 공기가 신선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물이 호흡할 때, 오염된 공기가 녹색식물에 의해 맑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산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녹색식물에 공기를 정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햇빛이 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목하지 못하고 1779년에 식물이 산소를 배출한다는 사실만 발표하였다.

그 후에 프리스틀리의 실험한 내용을 읽고 자극을 받아 평장한 열성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식물 영양학 발달 사상 불멸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잉겐호우스(Ingenhousz, 1730~1799)인데 네덜란드 사람이다. 그가 식물학계에 발을 디딜 당시에는 위에 설명한 대로 소위 부식토(腐植土)설이라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였다. 그러나 부식토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바위 위에도 거목이 자라고 있으며, 그냥 물속에서도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탄소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잉겐호우스는 소쉬르(Saussure, 1767~1845)와 함께, 이 탄소가 공기 중에 함유된 탄산가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실험을 통하여 녹색 잎이 이것을 섭취 하며, 이 작용은 녹색 잎이 햇빛을 받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동물과 같이 탄산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광합성의 원리를 실증하였으며, 광합성과 호흡 작용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었다. 그러나 녹색 잎에서 배출되는 산소가 어떻게 분리되는 지는 깨닫지 못하였다.

제네비어(Senebier, 1742~1809)는 스위스의 목사로서 그는 잉겐호우스보다도 화학적 지식이 한층 풍부한 사람이었다. 식물에서의 영양 작용의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화학의 일반 법칙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당시의 화학 문헌들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식물의 조직은 흙, 물, 공기 등의 성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화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과, 분해 작용은 일반적으로 광선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지고, 햇빛은 식물의 녹색 부분에서 탄산가스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식물체 내의 염류의 의의’라는 문제를 아주 자세히 진술하였고, 식물체액 중의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등이 외부에서 섭취된 것인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여, 결국 이들은 외부에서 섭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광합성에 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들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식물이 배출하는 산소는 먼저 흡수한 탄산가스에서 유리(遊離-화합물 가운데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자나 원자단이 분리하는 일. 또는 원자나 원자단이 결합을 이루지 아니하고 다른 물질 속에 분리되어 있는 일.) 되었으며, 녹색 부분에서만 이 분해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연계에는 식물에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탄산가스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어두운 중에서 동식물이 뿐어낸 오염된 공기를 식물은 빛 아래서 정화된 공기로 전환시킨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후 광합성은 두 기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합성 연구사에서 잉겐호우스와 함께 영예를 누릴 사람은 소쉬르(Saussure, 1767~1845)이다. 그의 아버지는 등산가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식물학에 비상한 흥미를 가졌으며, 또 물리학, 화학, 지질학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20대 시절, 소쉬르는 알프스에 올라 아버지의 야외 관찰 등을 돋기 시작하면서 자연계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광합성 작용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1804년 처음으로 광합성의 양을 측정 하여, 식물은 배출한 산소량보다 많은 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것 같은데, 교환되는 탄산가스와 산소의 양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밝혔다.

과학자들의 이런 노력으로 햇빛과 물이 식물을 성장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햇빛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요셉 지파에게 축복하면서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신33:14)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위에 기록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식물이 밤에 잘 자라난다는 것을 안 것도 아마 광합성작

용과 호흡작용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야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모세는 ‘태음이 자라게 한다’는 말로 식물의 성장이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태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달이다. 그러나 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결실하게 한다는 말은 태양 곧 햇빛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다.

어떻게 이러한 오묘한 사실을 알았을까.

과학계가 겨우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안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원전 1,500년대에 가르쳐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발견하기 3,2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영감으로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광합성작용은 초록빛 잎을 가진 식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빛이 초록색 나뭇잎에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몰랐다.

나뭇잎들은 어떻게 초록빛을 띠는 것일까?

어떤 물체가 햇빛을 만나면 그 물체는 햇빛 중에서 어느 파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부분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체의 색이 그런 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파란색 물감은 빨간색, 노란색 즉 긴 파장 쪽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되쏘는 색인 파란색이 보이고, 노란색 물감은 빨간색과 파란색, 보라색 부분을 흡수하고 노란색을 되쏘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것이다. 노란색과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무지개 색깔 중에서 가운데 색인 초록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깔이 흡수되어서 초록색을 얻게 된다.

그런데 식물의 엽록소(Chlorophyll)에는 빨간색을 흡수하는 것과 파란색을 흡수하는 것의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뭇잎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만일 초록색을 흡수하는 엽록소가 더 있었다면 나뭇잎은 모든 빛이 흡수되고 아무 빛도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세상은 얼마나 칙칙해 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직해진다.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장식하셨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지면 엽록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 있던 노란색, 붉은색의 색소들이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뭇잎뿐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다 그렇다. 그런데 나뭇잎 속에 있는 엽록소가 햇빛을 받아서 초록색을 띠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녹색식물이라고 분류하며, 이 녹색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광합성작용이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녹색 잎사귀가 광합성작용을 하여 녹말을 만들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다. 태양의 결실케 하는 보물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성경 옵기에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푸르게 된다고 기록하였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벌어가며”(옵8:16)

옵기는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옵이 직접 기록하였다고도 한다. 그런데 만일 옵이 기록하였다면 기원전 1,500년보다 훨씬 먼저 기록한 것이다. 옵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옛날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식물(植物)이 햇빛을 받

아 푸르러진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지식의 발전으로 미루어 볼 때 대단한 지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푸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토브’인데, ‘물기가 많은, 싱싱한, 푸르른’ 것을 뜻하는 말이다. 요즘 번역들은 ‘물이 올랐다’, ‘싱싱하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역에는 ‘녹색 green’으로 번역하였고, 한글 개역판에는 ‘푸르다’고 번역하였다. ‘라토브’는 이처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햇빛을 받아 ‘라토브’가 되었다는 표현은 나뭇잎의 녹색현상과 물이 올라 싱싱하게 되는 현상을 묘사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말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한글에는 이런 단어가 없다. 광합성작용을 위하여 물이 필요하며, 녹색이 필요하다. 이미 설명한 대로 1804년 스위스의 N. T. 소쉬르가 녹색식물의 광합성에서, 물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유기물의 합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라토브’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현상 즉 녹색 현상과 물이 필요한 사실을 한꺼번에 다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따라 그만큼씩만 알게 하신다. 기원전 1,500년경에 광합성작용, 탄소동화작용이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 합당한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천연계의 이런 현상을 과학이 발견하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 표현하였을 뿐인데, 성경을 보니 이미 그런 과학적 사실(현상)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법칙을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견할 것도 이미 아시고, 그런 날이 올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것을 기록한 내용을 발견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alleluia!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 2 땅을 공간에 매어닮 (욥26:7)

땅 곧 지구가 공간에 매어달려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신화들은 이 땅이 거대한 거북 등에 올려 놓였다는지, 아틀라스라는 거인이 두 팔로 받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땅이 무엇인가 위에 얹혀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기록한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폐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26:7).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글을 기록한 모세도 이해하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시므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땅은 평평하게 생겼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이 익히 들어온 이야기들이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여 서방세계를 경악하게 했을 때, 한국의 어떤 신문사

기자가 소백산 밑에서 정감록을 믿으며 사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여 취재를 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기자가 방문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사람들처럼 상투를 틀고, 조선시대 옷차림으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가 기이한 생각에 말을 걸었다. 긴 대화를 여기 다 옮길 필요는 없다. 인공위성과 관계된 대화만 옮기면 이렇다.

“어르신, 지금 하늘에 인공위성이 날아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다니? 어떻게 지구를 돋나는 말이요. 그것 다 헛소리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 주위를 잘 돌 수 있지요.”

이 말을 들은 어른은 긴 장대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 아주 긴 장대를 가지고 오자, 그것을 마당에 놓았다. 그리고 기자를 보고 말했다.

“봐요, 기자 선생, 땅이 둑글다면 이 장대 양끝이 들려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이 양끝이 다 땅에 닿아 있는데, 둑글다는 소리가 헛소리 아니고 뭐요. 땅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어딘가에 끝이 있다는 말이오.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어딘가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것이 맞지.”

이처럼 1957년에도 땅이 둑근 모양으로 공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으며 어디엔가 낭떠러지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 사람들이 지구를 평평하며 어떤 토대 위에 얹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육기에 땅

을 공간에 달았다고 기록하였다. 공간이라는 말은 허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땅이 공간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된 것은 코페르니쿠스(1473-1543)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5월 그의 저서인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별들이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부정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주위를 돋나는 새로운 우주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의 우주 체계를 지동설 혹은 태양 중심설이라고 한다.

사실 이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 전에 코페르니쿠스보다 1,700여 년이나 앞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문학자였던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os, BC 310?~BC 230?)가 주장했었다. 그는 우주의 중심은 태양으로, 태양 주위를 지구와 별,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설명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지구, 달, 태양 등 세 천체의 상대적인 크기와 거리를 계산해 내기도 했다. 오늘날의 계산과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 시대 상황을 참고한다면 그 계산 방법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BC 281~BC 280년에 하지(夏至)를 관측하였으며,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일주운동(日周運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동설(地動說)을 제창한 최초의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보다 훨씬 큰 우주를 생각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그의 유일한 논문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 저술이지만, 이 속에서 3각법을 사용하고 몇 가지 가설을 마련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①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의 18배나 되고, 20배보다는 짧다.

② 태양의 지름과 달의 지름의 비는 위와 같은 비율이다.

③ 태양의 지름과 지구의 지름의 비는 19:3 보다는 크지만, 43:6 보다는 작다.

이 결론은 맞은 것이 아니지만, 그 방법은 옳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이름을 거의 들은 적이 없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우주 체계는 그 시대를 너무 앞선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고대나 중세의 과학수준으로는 지동설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의 이 지동설은 그 뒤 여러 이름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그 중에는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파르코스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주장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코페르니쿠스 때에 다시 지동설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당시 천주교 교황청은 천동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믿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주장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도록 권하여 마침내 책으로 출판하였으나 그것은 그가 죽던 해였다.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출판된 책을 임종하는 자리에서 겨우 보았다고 한다.

그 후 갈릴레이 갈릴레오(Galilei, Galileo 1564-1642)에게 이런 주장이 계승되었으나 교황청은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였고 그래서 그는 아마도 교회와 부딪히기 싫어서 자기 주장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 말은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다.

이 지동설과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이 1665년 1월에 만유인력(萬有引力)을 발견하여 설명했을 때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다.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는 그가 인력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는 우주의 천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천체들은 와해되지 않고 궤도 운행을 하면서 아주 멋진 균형을 이루고 아직까지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땅을 공간에 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리스타르코스보다도 1,300년 전에 말한 것이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주장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읍기의 이 기록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이 이해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후대에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성경이, 사람이 발견한 과학보다 훨씬 먼저 과학적 사실을 기록한 것을 알게 하여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실 수 있

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여기 달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탈라’인데 ‘매어달다’라는 뜻이다. 매어달기 위하여서는 매어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이 ‘인력’ 곧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것이다. 뉴턴은 이것을 발견하여 ‘만유인력’이라고 이름 한 것이다.

성경은 자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정확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숨겨 두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 비밀을 열어 보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 3 기압과 바람의 무게 (욥28:25)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냥 바람이 부는가보다 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바람에도 무게가 있다. 이것을 자연과학이 깨달은 것은 17세기이다. 토리첼리가 수은주로 실험하여 기압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기까지는 바람의 무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1640년 토스카나 공화국의 대공은 궁전의 뜰에 우물을 파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지하수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 일꾼들이 지하 13m까지 파 내려가서야 겨우 물을 찾아냈다. 그래서 펌프의 관을 내려서 물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이번에

는 이상하게도 펌프가 물을 전혀 끌어 올리지 못 했다. 펌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토스카나 대공은 이 문제의 해결을 당시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갈릴레이에게 의뢰하였다. 갈릴레이이는 이 문제에 대해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현재는 대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기압 문제를 해결한 현대식 펌프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물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했으며 갈릴레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 토리첼리(Torricelli, Evangelista, 1608. 10. 15~1647. 10. 25)에게 연구해 보도록 맡겼다. 이미 갈릴레이이는 늙었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벅찼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갈릴레이가 토리첼리에게 이 문제의 연구를 당부하고 2년 후 세상을 떠난 사실로 보아서 그렇다.

토리첼리는 1643년, 물보다 더 무거운 수은을 이용하면 아주 짧은 유리관으로도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보다 13.6배나 무거운 수은으로 실험하였다.

물 대신에 수은을 사용하면 10m나 되는 긴 관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1m의 유리관으로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긴 관 대신에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 속에 수은을 가득 채워 넣고 열려 있는 다른 쪽 끝을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수은이 담겨 있는 그릇에 이 유리관을 거꾸로 세우고 손을 떼어 보았다. 그랬더니 수은주의 높이가 76cm까지 내려가고 유리관의 윗부분에 텅 빈 공간이 생겼다. 원래 유리관은 수은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거꾸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틈은 없었다. 이 실험으로 토리첼리가 진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수은주의 윗부분에 생긴 이 진공을 ‘토리첼리의 진공’이라 부른다. 또 토리첼리는 유리관을 옆으로 기울여도 수은주의 높이가 항상 76cm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만일 진공의 힘이 수은을 빨아올린다면 유리관 속의 진공의 부피가 변하는데도 수은주의 높이는 왜 항상 76cm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진공과는 상관없이 수은주의 높이를 항상 76cm로 유지시키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토리첼리는 수은을 진공이 빨아올린 것이 아니라 그릇의 수은 면을 내려 누르는 공기의 무게가 유리관 속의 수은을 밀어 올린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실험으로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기압을 이용하여 빠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의 결과로 기압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기압이란 공기의 압력이라는 말로서 공기의 내려누르는 무게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공기 곧 바람의 무게인 것이다. 이 실험으로 바람에도 무게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원전 1,500년경에 이미 기록하였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욥28:25).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고 말한다. “경중”이라고 번역을 해서 “가볍고 무겁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쉬칼”이라는 원어는 “무게”라는 뜻이다. 기원전 1,500년

경에 이미 바람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또한 바람의 무게일 뿐 아니라, 경중이라는 표현은 ‘기압의 차이’를 뜻하며,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학이 겨우 17세기에 알게 된 사실을 기원전 16세기에 이미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으시다. 성경의 기록은 인간의 과학적 발견보다 이렇게 앞서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기록한 모세나 이런 말을 한 읍이 오늘 날 과학자들이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선지자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그들 자신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학자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말씀으로 숨겨져 있었으나, 때가 되어 과학이 그런 것을 발견한 뒤에 성경을 보니 이미 그런 사실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 4 전파와 번개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욥38:35).

천둥과 번개처럼 옛사람들을 놀라게 한 자연현상은 없었

을 것이다. 하늘이 노해서 벼락을 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번개치고 천둥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천둥의 정체를 오랫동안 모른 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천둥과 번개도 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전기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는데,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천둥과 전기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1752년 7월에 한 실험을 했다. 그는 연에다 30cm쯤 되는 철사를 매어달고, 연줄의 끝에는 명주 끈을 묶고 연줄과 끈을 이은 자리에 금속 열쇠를 매달았다. 그리고 연을 띠울 때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주리본을 잡고 띠웠다.

연줄이 비에 젖자, 어떤 반응이 왔는데, 손가락을 열쇠에 가까이 대자 ‘퍽’ 하고 불꽃이 튀며 손가락에 짜릿한 통증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열쇠를 라이덴병(전기실험을 위해 고안된 병)에 대고 전기를 저장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번개가 전기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기가 전파를 발생하는 것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우리에겐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많다. 물, 공기, 태양, 전기도 그런 경우지만 전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전파가 없다면 현대인의 생활은 엄청나게 불편할 것이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줄인 말이다. 이것은 인공적인 매개물이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기파이인데,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를 포함하여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우주선 등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예언한 사람은 영국의 맥스웰이다.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법칙에 벤위전류를 추가하여, 전계(電界)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계(磁界)가 생기고, 자계는 또 전계를 발생시켜 파동(전파)이 발생한다고 1871년에 발표했다. 이렇게 발생되는 전파는 이미 태고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맥스웰도 오늘날 전파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 활용되어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맥스웰의 학설을 기초로 하여 드디어 전파를 포착하는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전파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헤르츠의 기초실험은 전선 모양으로 배열한 두 줄을 한쪽은 라이덴병의 안쪽에다 접속하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접속해서 끝부분 AB 사이를 접근시켜 방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전자기파 발생장치의 도선의 길이는 2~3미터이고 발생한 전자기파는 발생장치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는 루프 CD사이에서 검출되었다.

이후 헤르츠는 전자기파를 검출하기 위해 전자 송수신장치를 만들어 전자기파의 속도가 초당 30만 Km로 빛의 속도와 같다는 맥스웰의 예언을 확증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파가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이동통신을 실용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을 뿐, 전파를 이용한 통신의 실용화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후, 1895년에 이태리 사람 마르코니가 영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 무선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방송국의 주파수 단위인 Hz는 바로 헤르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전파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기의 흐름인 전류를 이해해야 한다. 교류 전원에 전선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전도전류라 하고 전도전류 주위에는 전계(電界)와 자계(磁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전파는 원래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를 띤 구름과 구름, 또는 구름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현상인 번개로부터, 넓은 주파수대역의 전파가 발생하여 무선통신을 방해한다. 이것이 공전(空電)이다. 이것들은 파장이 짧은 전파가 적으로 초음파나 마이크로파에 의한 통신은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날 세상은 전파 세상이다. 전파의 역할이 없으면 오늘날 같은 정보 세상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기 전에 이미 우주에는 전기를 띤 물체들이 많이 있고 태양도 전파를 발생하며, 또 번개도 전파를 발생한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욥38:35).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보내어 소식을 전하신다는 말씀이다. 즉 번개는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육과 모세 시대에는 전파라는 말이 없었지만 번개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전파로 통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 말  
씀이라고 이해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모든 법칙을 제정하신 하나님  
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아내기 오래 전에 이미 그 시대의  
표현방법으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  
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세상이 이런 것을 발견하여 과학적  
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학이 그런 현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제정해 놓아서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와서야 겨우  
발견하여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  
람들이 과학적 발견을 하기 수천 년 전에 그런 사실을 영감  
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재림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청년의 때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다.

## 5 천문학과 성경의 별 이야기

### 1) 별의 수효에 대하여 (렘33:22)

요즘은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2,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구가 속해있는 은하계는 우주에  
있는 1,000억개 이상의 은하계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1,000억 개의 은하계에 각 은하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항성

의 수 2,000억 개를 곱하면 하늘의 항성의 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더 멀리 관측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은하계가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별의 수가 얼마나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주에는 사람들이 도저히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는 것이다.

별을 세는 계산법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에 대한 정보와 은하계 정보를 합쳐서 추측을 해보는 방법뿐이다. 우리 은하계는 다른 모든 은하계와 마찬가지로 항성, 가스, 우주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하계는 내부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연구해서 은하게 안에 별들을 비롯한 여러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추측할 뿐이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게 바깥의 별이나 다른 은하게를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더 우수한 도구를 만드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허블(Hubble) 천체망원경이다. 우주는 아주 어둡기 때문에 우주 한 부분의 사진을 이 망원경으로 아주 여러 번 찍는다. 그 후 이 사진들을 컴퓨터로 합성해 멀리 있는 항성들과 은하계들이 내는 희미한 빛이 보일 수 있게 한다. 물론 허블망원경으로도 우주 끝까지는 볼 수 없다.

지금은 별들의 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별들에 대하여서는 헤아릴 엄두도 못 내었던 것 같다.

별을 세어서 그 숫자를 적어 목록을 작성한 것은 서양에서는 히파르코스(Hipparchos, BC 160?~BC 125?)가 시작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히파르코스는 천체의 조직적 관측과 그 운동의 수학적 처리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니케아에서 출생하여 로도섬에서 활동하였다. 저서는 남아 있지 않으나 그의 연구업적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 『알마게스트』에 수록되어 후세 천문학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4계절의 길이가 똑같지 않은 것에서 착안하여 태양의 궤도를 이심원(離心圓)으로 계산하였고, 마찬가지로 달의 이심원을 정하여 태양과 달의 운행표를 만들어 일식과 월식을 예보하였다.

또한 신성(新星)과 혜성(彗星)을 관측하였고, 1,080개의 행성의 밝기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항성목록(恒星目錄) 작성을 시도하였으며, 그것을 150년 전의 티모카리스성표(星表)와 비교하여 항성들의 황위(黃緯)는 같지만 황경(黃經)이 약  $2^{\circ}$ 씩 증가된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춘분점(春分點)이 황도(黃道) 위를 매년  $48''$ 씩 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춘분점의 세차(歲差)라고 불렀다. 그리고 천체운동에 관한 계산의 기초로서 삼각법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항성목록은 천체의 동정과 새로운 천체의 발견, 그리고 항성 통계작업 등에 주로 이용된다. 오늘날 사용되는 항성 목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특정한 기산점(起算點)에서의 천체의 정확한 위치(보통 赤經과 赤緯)와 등급단위로 표시된 천체의 밝기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천체의 분광형(分光型), 세차운동(歲差運動)과 고유운동의 수정값, 시차(視差) 등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항성목록은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세계 최초의 항성목록은 BC 4세기경 중국에서 제작되었

는데 전국(戰國)시대에 석갑(石甲)이 120개의 항성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그 후 수(隋)의 단원자(丹元子)는 『보천가(步天歌)』라는 항성목록에 284개의 별자리로 나누어진 1,464개의 항성을 관측하여 수록했다. 『보천가』는 이후에 동양에서 작성된 항성목록의 기본형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800년대에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의 천문학자이었던 남병길(南秉吉)이 1,449개 항성들의 자료를 모아 『성경(星鏡)』이라는 항성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처럼 오래된 항성목록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보존된 항성목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AD 150년에 제작된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 『알마게스트 : Almagest』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프톨레마이오스는 1,022개 항성들의 황경(黃經)과 황위(黃緯), 그리고 1.0~6.0m 범위의 밝은 항성들을 수록하였다. 이 항성목록은 바로 히파르코스의 항성목록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上記)한 기술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 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별을 세었고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보면, 그 노력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릇된 정보들을 제공했는지 알 수 있다. 하늘의 별들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고백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21세기에 와서 별들은 셀 수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오래 전에 그렇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하였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창15:5).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렘33:22).

여기서 만상이라는 말은 천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군대, 전쟁, 무리(群衆)’를 뜻하는 낱말이다. 이것이 천체를 나타낼 때는 언제나 단수로 사용된다. 위에 든 성경구절의 ‘만상’은 단수로서 천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대의 선지자이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은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세어보려고 노력했으며, 항성목록을 만들어서 별의 숫자를 적어 넣었다. 그것이 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셀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센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현대에 와서 관측 기기(器械)가 발달하여서 참으로 하늘의 별들은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곧 별들을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두 손 들었다는 말이다. 그런즉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은 얼마나 정확하고 바른 말씀인가. 사람은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없지만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세실 수 있다고 성경은 계시한다.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시147:4).

하나님은 별의 수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다 부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에 계획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같다. 계획한 사람은 그 내용을 다 기억해야 한다. 머리로 기억이 안 된다면 기록해놓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지성으로 그것들을 다 이시는 것이다. 그분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분은 다 이신다. 그렇거든 친히 계획하고 만드신 것들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는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사40:26).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수효를 정하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내심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크도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여! 어떤 사람이 그의 능력을 헤아릴 수 있으리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영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해야 하고, 청년의 때에 기억하게 해야 한다. 아멘.

## 2) 묘성의 떨기 (욥38:31)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욥38:31)라고 기록하고 있다.

‘묘성(昴星)’은 우리나라에서 ‘좀생이별’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수바루’, 게르만족은 ‘어미닭과 병아리’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개성단으로서 황소별자리에 있는 유명한 성단이다. 서양에서는 아틀라스의 일곱 자매가 비둘기가 되었는데, 제우스가 불쌍히 여겨 별이 되게 했다는 신화를 만들어서 플레이아데스라고 부른다. 우리가 별자리를 배우면 비둘기별자리라고 배울 것이다. 플레이아데스성단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일곱 개의 별은 각각, 알키오네(Alcyone), 아스테로페(Asterope), 케라에노(Celaeno), 엘렉트라(Electra), 마이아(Maia), 메로페(Merope) 그리고 타이게타(Taygeta)로서 모두 일곱 자매의 이름이 있다. 플레이아데스성단의 작은 국자 모양 손잡이 부분에 아버지 아틀라스와 어머니 플레이오네의 별이 있는데 원래부터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17세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리치올리가 추가한 것이다.

이 별자리를 찾아보려면 오리온자리의 알파별인 베텔게우스로부터 알데바란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 좀 더 나아가면 작은 국자 모양으로 촘촘히 별이 모인 플레이아데스성단을 간단히 찾을 수 있다. 도시에서도 쌍안경을 사용하면 약 15 개의 별을 셀 수 있다. 도시의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육안으로도 국자모양의 6개의 별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에는 성단을 둘러싸고 있는 희미한 반사성운도 볼 수 있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플레이아데스성단에서 9개까지도 별을 찾을 수 있다. 천문학자 모에스틀린은 14개까지 확인했다. 1609년 처음으로 3cm 망원경을 통해 플레이아데스성단을 관측한 갈릴레이은 예상 외로 많은 별을 발견하고 크

게 놀랐다. 실제로는 8광년의 좁은 공간에 500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대가족이다. 밝기 1.6등급인 플레이아데스성단은 380광년 거리에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1억 년 전에 생성된 젊은 성단이라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성단의 별들은 동시에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이 플레이아데스성단은 성단 가운데 매우 특별한 성단이다. 그것은 ‘은하’ 또는 ‘산개성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산개성단’이라는 말은 ‘성단의 별들이 흩어져 서로 멀어져 가는 성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성단 별 사이의 먼지와 가스가 아주 적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그런 산개성단과는 달리 별들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개개의 별의 운동에너지가 성단 중력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어서 성단 내 별들이 달아날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다는(bound) 말이다.

이런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다. 그 반대적인 현상 즉 별들이 흩어져 서로 멀어져 가는 현상이 보통 산개 또는 은하성단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성단의 별들이 중력으로 묶여져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생성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육기의 기록을 의미 있게 생각하게 한다. 성경은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고 기록했기 때문이다(욥38:31).

떨기가 되게 한다는 말은 ‘카샤르’인데 ‘한데 묶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매어’라는 말도 사용하였는데, ‘마아다나’로서 ‘끈’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묘성을 끈으로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는 뜻이다.

우리는 앞에서 땅을 공간에 달았다는 말씀을 보면서 ‘마아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기에는 ‘매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묘성에 대하여 말하면서는 ‘매어 떨기 되게 했다’고 기록한다. 결국 별들이 인력의 끈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그 시대의 말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이 묘성은 인력으로 묶여 되어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묶여 있는 것이다.

성경은 다만 묘성이 매여 떨기 되었다고만 기록했으나 현대 천문학은 묘성이 하나의 성단으로서 묶여 있는 것처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여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다. 그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묘성도 창조하신 것이다. 그가 묘성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성단이 그렇게 운동하도록 설계하신 것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시 119:91).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참된 과학의 창시자이시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법칙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마치 과학이 그것을 창조나 한 것처럼 뽑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발견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알아내도록 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는 것이다.

### 3) 삼성의 띠 (욥38:31)

삼성이라고 기록한 것은 ‘오리온성좌’를 가리키는 말이다. 70인역 성경에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를 “오리온의 울타리를 열겠느냐”라고 번역하였다.

‘오리온성좌’는 하늘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별 그룹 중의 하나이다. 사실상 성좌로 설명되는 모든 성좌가 별들의 거대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성좌들은 실제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지만 같은 시선 상(視線上)에 위치함으로써 한 성좌를 이루는 것이다. 오리온성좌 중 먼 것은 약 1,600광년 떨어져 있다. 약 350광년이나 되는 직경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광대한 다량의 가스와 먼지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체계(system)는 중력적으로 불안정하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좌를 함께 묶는 중력적 속박(bands)이 실제로 느슨해지고 있으며, 성좌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좌 안의 작은 성단들도 느슨하게 풀어지고 있다고 어떤 천문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리온성좌가 느슨하게 풀어져가는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네가 …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욥38:31). 이 말씀이 70인 역 성경에는 “네가 … 오리온의 울타리를 열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번역은 오리온성좌가 바깥으로 천천히 팽창하는 현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엘렌 화잇은 계시 중에 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무거운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치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 나갔다. 그 때 우리는 오리온성좌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

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초기문집 41). 하나님께서는 오리온성좌의 울타리를 여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사람이 어떻게 이 중력의 끈을 풀 수 있겠는가. 묘성이나 삼성에 대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에 우리는 감복할 수밖에 없다. 망원경이 없었고, 만유인력에 대한 사실이 발견되기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4) 북두성과 속도 (욥38:32)

욥기 38:32에는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로는 ‘아이쉬’인데, 우리말에 ‘북두성’이라고 번역되었고, 영어에는 ‘아크투루스(Arcturus)’, 중국어로는 ‘대각성(大角星)’이라고 번역되었다. 영어 번역들도 개역 표준역(RSV)과 미국 표준역(ASV)은 ‘북두칠성(Bear)’으로 번역하였는데, ‘북두성’이라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이쉬’가 대각성을 뜻하는지 북두칠성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한 별들을 ‘인도 한다’는 말에 의하여 대각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도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인데, ‘이끌다’라는 뜻이다. 인도한다는 말과 이끌다는 말은 같은 뜻인 것 같아도 조금 다르다. 인도는 안내하는 것이지만, 이끄는 것

은 앞에서 끌고 가는 뜻이 있다. 이 대각성은 끌고 가듯이 그에게 속한 별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일까?

목동좌의 알파(a)별 아크투루스는 금빛으로 빛나는 별로, 그 이름은 곰의 파수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 유래하고 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36광년, 질량은 태양의 4.5배, 반지름은 24배인데 아크투루스의 위치는 고대 그리스 시대와 비교하면 18세기에는 약 1도 만큼 이동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헬리였다. 이 발견으로 항성의 고유운동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아크투루스는 고속도로 움직이는 별이며 태양계와의 상대적인 공간운동은 초속 1,250 km나 된다.

현재 알려져 있는 별들 중에 그 속도가 가장 빠른 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네가 아크투루스를 이끌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별을 이끌어 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며, 그 별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암시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천문학이 아크투루스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별인 것을 알았을 때 ‘나하’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옵기에 이런 천체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무슨 말인지 읽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나, 학문이 발달하게 되자 그런 표현들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그 옛날 성경 기자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의 상태를 잘 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것들의 상태를 알맞

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천연계의 현상에 대한 표현은 오늘 날 과학의 발달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날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과학적 사실과 견주어 알게 된다면 어린 입으로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겠는가!

## 6 비가 오는 원리에 대하여 (욥36:26,27)

옛 사람들은 “비가 어떻게 오나요?”라고 묻는 말에,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야.”라고 대답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질문에,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지.”라고 대답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는지 알지 못했다. 그냥 하늘이 비를 내리는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정말 어떻게 비가 오는 것인가? 노아홍수 사건이나, 성경에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 표현 등으로 교회도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며 구체적인 것을 물으면 믿으라고 강요한다. 더욱 집요하게 물으면 믿음이 없다고 몰아붙인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막연히 듣고 자라서 학교에 가면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르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막연한 가르침이 산산이 깨어지고 아이들의 마

음에 불신의 또아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경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불신의 썩을 틔우게 된다.

학교에서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배우는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 알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용어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르친다.

“물이 햇빛에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구름으로 공중에 떠 있다가 찬 공기에 부딪혀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다”라고 설명하여주니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아이라도 이런 설명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주 타당하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선생님이 “비는 어떻게 오지요?”라고 물으면, 얼른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다고 하고 좋아하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같은 질문을 받으면 “물이 햇빛에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 있다가 찬 공기를 만나서 물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맞고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옳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르다고 믿는다.

그런데 과학계가 비가 오는 현상을 알게 된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 어쩌면 중세 교회의 위력에 눌려 자연현상을 모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라고만 믿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지도 않았는지 모를 일이지만, 비가 내리는 이유가 규명된 것은 근세(近世) 곧 16,17세기경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페라울트(Pierre Perrault)와 마리오테(Edme Mariotte)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천문학자 할레이(Edmund Halley)는 물의 순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강수(降水)와 증발(蒸發)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근세에 와서야 비가 오는 현상을 증발 응결 강수의 이론으로 설명하였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와서 과학자들이 물의 이런 순환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빗방울의 지름은 구름방울의 100배 이상, 1개의 빗방울은 10만 개의 구름방울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많은 양의 구름방울이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에 어떻게 병합(併合)되어 큰 빗방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빙정설(冰晶說)과 병합설의 두 가지 이론이 제기된다. 빙정우(冰晶雨)는  $-40^{\circ}\text{C}$  정도까지 냉각된 구름 꼭대기 부근에 생긴 빙정이, 빙정과 물방울이 공존하고 있는 층을 떨어져 내려오게 되면 포화수증기압의 차이로 물방울은 증발하고 빙정은 승화(昇華)에 의하여 자란다. 이 빙정은 떨어지면서 구름방울과 붙어서 눈 조각이 되는데, 더 아래층으로 떨어져 내려와서  $0^{\circ}\text{C}$  이상의 대기층에 들어오면 녹아서 큰 빗방울이 된다.

이 과정을 T. H. P. 베르예론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빙정설에 의한 비를 베르예론형 비라고도 하며, 지역적으로는 고위도지방, 계절적으로는 겨울비에 이 형이 많다.

병합설(併合說)은 열대지방처럼 구름꼭대기의 온도가  $0^{\circ}\text{C}$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구름 속에 보통 구름방울보다 큰

해수로부터의 염분( $1\sim10\mu\text{m}$ )을 핵으로 한 물방울이 존재하고 이 물방울이 작은 구름방울을 병합하여 빗방울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 과정을 연구한 사람은 우드콕과 I. 랭뮤어이며, 구름 꼭대기의 온도가  $0^\circ\text{C}$  이상이어도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비(warm rain)라고도 한다. 영국의 B. J. 메이슨이 이 과정을 요약하여 자연 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과학계가 그 현상을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내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현상을 기록해놓았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라”(욥36:27,28).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라. 현대 과학이 비가 오는 현상을 설명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말은 수증기 현상에 대한 당시의 표현일 뿐이다. “그것이 안개를 이룬다”는 말은 증발된 수증기가 구름방울로 뭉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그 다음 표현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명확하다. 비가 오는 현상을, 과학은 증발(蒸發), 응결(凝結), 강수(降水)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옵기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뿐만 아니다. 강수이론은 비가 오는 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크게 물의 순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비는 주로 증발한 바닷물로 형성된다. 지구상의 물의 비율은 바닷물 97.4%, 육지의 물과, 빙하 2%, 지하수 0.5%, 호수와 강물이 0.02%, 대기 0.001%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증발되는 전체양의 거의 전부인 셈이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기 오래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 시니라”(암9:6).

바닷물을 증발하게 하여 비가 되게 하시며 그것을 땅에 비로 쏟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전1:7).

이것은 할레이가 연구하여 제시한 강수(降水)와 증발(蒸發)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옛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강물이 계속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차지 않는 것은 수증기로 증발하는 양이 또 그만큼 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강수와 증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신묘하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11:33).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 놀랍지 아니한가! 성경은 벌써 기원전 16세기인 기원전 1,500년대에 이미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비가 오는 현상을 설명하고 물의 순환을 말하지 않았는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그렇게 되도록 그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문에 그 옛날에 선지자에게 그 현상을 그 시대의 말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계시와 영감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현대과학보다 엄청 앞서서 과학적 사실을 영감의 필치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을 수 있겠으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알며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144:1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시136:8).

재림성도들은 이러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고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곧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 7 해로(海路)의 발견

사람들이 살면서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길이 필요하게 되었다. 육지에서는 일부러 길을 닦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로 계속 걸어 다니면 곧 길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굳이 현대 같은 길을 닦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퀴가 발명되고 탈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길을 닦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육지에는 거

미줄 같이 길이 닦여졌으며, 기차가 발명되면서 철로가 놓였고, 배가 발명되면서 해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비행기가 발명되면서 항로(航路)가 필요하게 되었다.

텅 빈 공중에도 길이 있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역시 그 넓은 바다에 해로(海路)가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바다 물도 그 흐르는 길이 있고, 선박들이 항해할 때도 바닷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배가 발명되었거나 바다에 다니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대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은 해류가 흘러가는 길이다. 해류를 찾으면 배가 더 쉽게 다닐 수 있으며, 물고기들도 해류를 타면 빠르게 다니게 된다.

해류가 있다는 것과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모-리(Matthew Fontaine Maury 1806-1873)였다.

모-리가 이 사실을 알아내기 전 15세기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가 해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말이 전해오지만 어쩌면 생각으로 끝났는지 모를 일이다. 또한 피뢰침을 발명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인 프랭클린이 해류를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가 체신장관으로 있을 때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들이 두 주일이나 늦게 도착한 사실에 착안을 하고 그것이 해류 때문에 항해 속도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배를 타고 대서양에 나아가서 해류를 연구하였고, 마침내 그 것이 멕시코만류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 해류가 무역

풍(貿易風=중위도 고압대에서 열대 수렴대로 부는 바람. 이 바람은 북반구에서는 북동풍,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이 되며, 일년 내내 끊임없이 분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였다. 만일 이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바닷물이 배의 속도를 늦추도록 강하고 빠르게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바다에는 해류가 강하고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류에 대하여 알겠는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해류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나 20세기 초까지는 바다 밑에는 해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스트(G. Wust)가 1933, 1955, 1957년에 출간한 저서에서 남태평양 해저에는 아주 강한 해저 해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증명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추리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양 학자들은 그 주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 사진을 촬영한 결과 우스트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헤젠과 홀리스터(B. Heezen & C. Hollister)는 1964년에 현대적인 사진 촬영 기술로 바다 깊은 곳에 잔물결과 씻긴 자국이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 해류가 바다 밑 퇴적물 위를 지나가면서 물결 모양의 무늬를 만든 것이다.

모-리는 성경을 읽다가 해로가 있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이 해류와 해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해로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모-리가 읽은 성경말씀은 다음 말씀들이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시107:23-30).

이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25절)는 말씀을 읽고 바다가 순환계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선척들을 인도하는 해로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또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전1:7).

이 말씀에도 바다와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해로(海路)라는 말을 직접 쓴 말씀도 발견하였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시8:8).

모-리가 성경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특정한 바람과 해류가 있어서 해로를 만든다고 확신하고 연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바람과 바닷물의 상호작용으로 바다가 순환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다.

그는 항해일지를 관찰하여 바람과 해류에 관하여 자세히 연구하고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그렸는데, 이 항로는 선박들을 바다에 띄우는 나라들의 국제 협정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의 업적으로 해운회사들은 수만 달러의 비용을 줄 이게 되었고, 해양 사고의 가능성도 줄이게 된 것이다.

모-리의 물리해양학에 관한 저서는 바람과 해류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데 아직까지도 기본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1923년에 그의 고향인 미국 버지니아주 고센시에 그의 동상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로 발견자인 그는 대양과 바다로부터 처음으로 그 법칙을 찾아낸 천재였다. 1806년 1월 14일 출생하여 1873년 2월 1일 버지니아주 렉싱تون에서 별세하다. 고센 고개(Goshen Pass)를 지나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버지니아주 리치몬드로 가다. 오고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행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시편 8편과 107편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1923년 그의 고향 버지니아주에서 감사의 글을 드린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의 운행법칙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법칙을 발견했든지 못 했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칙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법칙을 따라 운행하도록 항상 섭리하시는 것이다. 현대과학이 그렇게 늦게 발견한 그 사실을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성경은 기록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원후 1800년대 후반에 와서야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의 지각이 더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하여 왜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여 비로소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연법칙을 발견한다. 사람이 그런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옛날이라도 그의 선지자들에게 그런 법칙에 대한 원리를 기록하도록 지혜와 감동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연계의 법칙을 밝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도 자연계에 대한 표현들은, 오늘날 과학이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보니 정확하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과학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시119:91).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마땅히 행할 길임을 가르쳐야 한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명확하게, 의심 없이 가르쳐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 8 인터넷과 시편 19편 3절

요즘은 컴퓨터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이다. 나이 든 세대

는 세칭 컴맹이요 넷맹이 많다. 그러나 젊은 세대치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흔히들 컴퓨터 혁명이라고 말한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산업혁명도 그 중에 하나이다. 다른 혁명들이 주로 정치적인 것들이라면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며 생활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인류 사회의 발전을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정보사회의 특징은 생산 중심 사회에서 서비스 중심사회로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서비스를 받을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여 거기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보 수집 능력이 그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정보 수집 능력의 총아가 컴퓨터이다. 1940년대 중반에 와서 컴퓨터가 출현하면서 젊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드디어 컴퓨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정보혁명을 가져왔다.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이 구축되고 오늘날은 컴퓨터로 통신망을 연결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줄로 정보망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있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인터넷(Internet)은 컴퓨터 통신망을 뜻하는 말이다. 인터넷을 열 때에 주소를 찾기 위하여 쓰는 www는 월드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약자이다. 이것의 근거는 전파이다. 전파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전파의 발견으로 전신, 전화, 무선전화 등이 개발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런 통신 수단의 발전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전파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무선통신에 대하여서는 “먼개를 보내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게 하신다는 읍기의 말씀과 관련하여 이미 말했다. 그런데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시편 19편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표현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시19:3,4).

인터넷 통신망이야 말로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온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리와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소리도 없이 언어도 없이 전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어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롬10:16-18).

그러나 이것을 과학적인 발견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무선통신에 관련된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 고 생각된다. 정말 인터넷 정보망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또한 훗날에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될 것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 통신망의 발달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오래 전에 그런 사실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뒤늦게 찾아서 사람들이 실용하도록 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 마치 그것을 사람이 발명한 것처럼 생각한다. 어떤 발명과 발견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지 않은 것을 만들거나 찾은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 하신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놓은 그것들을 찾아내어 사람들의 생활에 이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과학과 기술이 발명하고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원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성경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 발견, 발명들을 보면서 오래 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찾아 성경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신다.

또한 모-리 같은 과학자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자연계를 연구하여 그 법칙을 찾을 수 있게도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신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시14:1)고 한다.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미궁에서 해매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을 미리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도록 사랑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이 길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다. 아멘.

### 9 상대성 원리와 시편33:6

20세기에 이르러 이론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이라는 결출한 학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때까지 오직 뉴턴의 이론만이 마치 물리학의 성경처럼 여겨져 왔으나 아이슈타인이 그 발상을 새롭게 하므로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과로 상대성이론이 발표되면서 그 전에 뉴턴으로 대표되던 고전 물리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나는 자연과학 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성이론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그러나 상식적인 이야기로 통할 수 있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군인으로 있을 때 도서관에서 50인의 과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거기에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상대성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특히 특수상대성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다.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물질의 정지질량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해당 물질량에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해준 것과 같은 양으로 정량화된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E=mc^2$ 이라는 공식이 바로 이 등가원리(等價原理)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과 에너지는 형태가 다른 등가(等價)라는 것이다.

$E$ (에너지)는  $m$ (질량)에다  $c$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그 물질이 에너지의 형태가 된다는 공식이다.

나는 이 설명을 읽고 아주 흥분하게 되었다. 만일 물질이 에너지화 한다면, 그 역인 에너지가 물질화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앞에서 특수상대성원리는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등가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에너지가 물질화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질이 에너지화 하는 것은 원자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제조함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에너지를 물질화 하는 것은 실험해서 실용화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물리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이 공식의 역(逆)도 성립이 되는지 물었더니, 성립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물질을 에너지화 하는 일은 하는데 왜 에너지를 물질화 하는 것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에너지가 물질화 하였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흥분한 것이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말씀은 이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시33:6).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의 힘은 곧 말씀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물질화 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원리를 발견하여 공식화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계시를 과학적인 표현으로 증명한 셈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에너지로 물질 속에 저장하시는 일을 하신다. 사람들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에너지를 물질 속에 저장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곧 광합성작용이다. 이것은 태양에너지를 녹색 잎에 엽록소를 통하여 저장하는 일이다. 식물(植物)들이 이렇게 빛에너지를 받아서 물질 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시편33:6의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시는 말씀 에너지가 만물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기운은 힘 곧 에너지를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하신 그 말씀 에너지가 빛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해는 철저하게 과

학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의 현상을 지금 깨달은 과학적 사실에 정확하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입 기운 곧 말씀 에너지가 물질화 하게 하신 것이 처음에는 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법칙으로 정하시므로 천연계에서 그런 현상이 실현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 ‘기운’이라는 말은 ‘루아흐’인데 일반적으로 영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그러나 또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었다. 바람도 에너지이다. 아무튼 이 말씀은 에너지가 물질이 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씀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벌써 이 특수 상대성원리를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물질화 하게 하신 것이다.

이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초에 와서야 발견한 것이다. 뉴턴이 물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아직도 에너지가 물질화 하는 등가원리는 찾지 못하였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찾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성경을 읽어서 이것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연구하여 찾은 원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의 연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의 에너지로 물질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된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과학적 원리를 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과학적 원리들이 제정된 것이다. 에너지가 물질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로 제정하신 원리임에 틀림없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발견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연구를 부지런히 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인하여 감사한다.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4:10,11).

## 10 진화론과 시49:20

교권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직자들이 모든 성경을 그들의 이해대로 풀어서 가르치며 그들이 가르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조금도 없었다.

교회가 교권과 정권을 한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던 이런 시대에 감히 교회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아주 치밀하고도 철저히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활동하고 그 기초를 든든히 놓고 있었다. 이런 활동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살후2:7).

“불법의 비밀” 곧 불법하는 자가 비밀히 활동하는 그 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할 때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 편지서는 기원 51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불법의 비밀은 기원 51년경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7:25절에 예언된 세력인데,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세력인 것이다. 이 세력은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시고 돌비에 기록하여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려고 한 세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 “때에 관한 법”에 초점을 맞추고 은밀히 그 일을 추진하였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때에 관한 계명은 제4계명이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다.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 마치 자녀가 부모께 공경과 효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자기를 개인적으로 창조하사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은 처음부터 창조주 대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늘에서 반역의 전쟁을 일으킨 존재이다. 그러다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쫓겼으며, 땅에서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함을 증거하였을 때,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침탈할 계획을 한 것이,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것이었다.

이런 비밀 활동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제4계명을 변경하여 창조 사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요일을, 예수께서 부활한 기념일로서의 예배일로 조용히 변경시키는 일을 추진한 것이다.

일요일을 예배일로 제정하면 그 날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상관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희미해지고 마침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단은 이점을 노린 것이며, 아주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자연스럽게 주장하고 믿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와 진화론을 믿는 종교뿐이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다 진화론을 수용하는 종교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옛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사실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계시한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다. 제칠일 안식일이 아니 주일(週日)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일(主日)이라고 하여 예배일로 정하고, 그날을 성일로 지키는 기독교나, 또는 특별한 의미의 성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는 진화론을 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사단이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 놓고 인간의 지성을,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벼러지와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게 했다. 이렇게 발전한 종국이 진화론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짐승의 후예로 단정하게 하고 그것을 당연한 사실인 양 온 세상이 수용하게 하였다.

다윈 전에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은 아주 급속히 온 세상의 사상을 점령하였다. 종의 기원은 1859년에 출판되었다. 금년이 2006년이니까 아직 15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요원의 불길처럼 온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생물하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진화론적 술어들이 사용되고 진화론적 발상으로 학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성경의 어떤 예언적 사건과 맞물려 있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다가 그것이 전면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참 교회처럼 행세하는 세월이 예언된 기간만큼 흘러간 다음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대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쓴 경험 후에 성소 정결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되었다.

사단은 스스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것이다. 천사들이

예언을 살펴보는 데 열심이라면(벧전1:12) 전직 천사의 우두머리노릇을 하던 루스벨이 어찌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겠는가. 사단은 성경의 예언을 부지런히 살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크게 외쳐질 것을 짐작하고 창조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1848년에는 공산당 선언을 부추겼고, 1859년에 결정타를 때렸는데 바로 『종의 기원』을 출판한 것이다.

그때까지 교권에 눌려 있는 인간 이성이 거세게 반 기독교적으로, 반 성경적으로 흐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창조이야기는 그냥 신화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진화하였다고 온 세상을 흔들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 사상은 깊이 침투하여,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인 6일로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며 당연한 결과로 제4계명을 부인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믿도록 하는 데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과서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책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학교에서도 사용되어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진화론사상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사단은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진화론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사람의 조상을 짐승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메바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보셨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이런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49:20).

이 시편의 주제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라. 존귀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진화론 사상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니 사람이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5).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타락한 이성(理性)인가. 온 세상이 그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다.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짐승의 후예라니 얼마나 급전직하로 부패한 이성인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충일할지라도 자기의 정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식 그 문명은 비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

키는 교육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데는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며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 11 태양광선과 치료 말4:2

태양광선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99년 덴마크 의사인 N. 핀센(Finsen)이 처음으로 태양광선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부결핵에 자외선을 조사(照射)하여 치료함으로써 태양광선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로 핀센은 1903년에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광선치료라고 한다. 광선치료란 말 그대로 광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핀센의 연구 이후 광선치료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태양광선에서 나오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중에서 피부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자외선만을 방출하는 램프를 만들게 되었으며 더욱이 자외선을 파장별로 구분하여 자외선 A램프(320~400 nm), 자외선 B램프(280~320 nm), 자외선 C램프(200~280 nm)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1974년 패리시가 새로이 개발한 강한 자외선 A램프(UVA lamp)를 이용하여 메톡시소랄렌(8-methoxysoralen)이라는 약물을 투여한 후 자외선 A를 조사(照射)하여 건선 환자를 치료한 이후 피부과 분야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광선치료는 계속 발전하여 건선뿐만 아니라 백반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양성 결절, 유건선, 편평태선, 일광 두드러기 등의 질환 치료 및 혈액투석, 복막 투석 시의 소양증, 또한 다른 치료방법으로 잘 낫지 않는 소양증 치료에 응용되는 등 피부과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피부에 생기는 질환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에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광선치료가 피부병 치료뿐만 아니라 암 치료 심지어는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바이러스나 간염 바이러스까지 파괴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광선치료법이 의학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선을 의학에 처음 이용한 것은 고대 애굽에서 태양 광선과 아미 나주스(Ammi najus)라는 식물을 이용하여 백 반증을 치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광선의 치료 효과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태양광선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

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4:2).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말라기서는 기원전 400년경에 기록한 성경이다. 핀센이 1899년에 알아서 시도한 그 일을 성경은 핀센보다 2,300년 전에 이미 기록하였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시하셔서 가르쳐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일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짜여진 공부의 세계에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리에 합당하게 확신시키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도록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12 패러데이와 롬11:36

패러데이(Faraday, Michael, 1791.9.22~1867.8.25)는 자기(磁氣)와 전기(電氣)가 같은 것임을 증명한 과학자이다.

패러데이는 책 제본 업을 하는 솜씨 좋은 기술자였다. 그는 학력도 없었고 집안도 가난하였다. 가정의 호구지책으로 제본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평생을 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제본을 하면서 크게 얻은 것이 있었는데, 제본을 부탁하러 가져온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 그에게 제본을 맡기러 가져온 책들은 두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본을 하면서 그 책들을 읽어서 학교에 다

니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인생길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이르렀다. 그의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영국왕립과학연구소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강증을 준 것이다. 그 강의는 당시 왕립과학연구소의 과학자인 험프리 데이비 경의 강의였다. 데이비 경은 전기에 대하여, 또한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실체 뒤에 감추어진 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패러데이는 그날 들은 강의를 꼼꼼히 메모하였고, 돌아와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정서하고 강의에 사용했던 기구를 그림으로 그려 넣고 잘 정리된 원고를 가죽 뚜껑으로 멋지게 제본을 하였다. 패러데이는 그것을 데이비 경에게 보냈다. 얼마 후에 데이비는 패러데이를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하여 패러데이는 제본소를 그만 두고 왕립과학연구소에서 데이비의 실험 조교로 일하게 되었다. 패러데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그 즈음에 물리학 특히 전자기학(電磁氣學)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덴마크의 과학자 H. C. 외르스테드가 발견한 전류의 자기작용(磁氣作用)을 조사 연구하는 일을 맡았다. 당시에는 전기와 자기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었다. 전기는 전지에서 ‘딱딱’ 소리나 ‘쉬익’ 소리를 내는 어떤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달랐다. 자기는 나침반의 바늘을 잡아당기거나 쇠 조각을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그때 자기는 전지나 전기 회로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르스테드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강의하면서 전류를 전선에 흘려보내면서

나침반을 그 전선 위에 두면 바늘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어떻게 금속 전선 안에 있는 전기력이 밖으로 빠져나와 바늘을 움직이게 할까? 20대 후반의 꿈 많은 청년 패러데이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즉 자기와 전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 요청을 받고 대단히 흥분하였다.

당시 과학계는 어떤 복잡한 동작도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기와 자석 사이에 어떤 직선적인 인력(引力)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학문을 배우지 않은 패러데이에게는 직선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그는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전기와 자기 관계를 연구하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 구혼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821년 그가 29세일 때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출석하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다.

이 교회는 영국에 전도한 로버트 샌디먼의 교훈을 받아들인 샌디먼파 교회였다. 이 교회는 온건한 성경 직역주의를 따르는 교회인데, 패러데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곡선과 회전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인간은 서로 도우며 거듭난 거룩한 본성에 기초하여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돋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돋고, 이런 식으로 완전한 원을 이를 때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패러데이는 이 회전 원 개념을 전기와 자기의 관계에 적용시키면 안 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이 말씀은 완전한 회전 개념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와 자기도 그처럼 서로 순환하는 원을 그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석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자석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휘몰아치듯 소용돌이치는 곡선, 즉 원이 생긴다고 상상을 한 것이다. 만일 그의 상상이 옳다면 느슨하게 매달린 전선은 신비한 곡선을 따라 팽팽하게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지를 연결하였다. 그 즉시 그의 상상은 현실로 나타났으며 세기의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와 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성질의 것임이 증명된 것이다. 이때가 바로 1821년이었고 그가 29세 때였다.

이 세기의 발견을 한 배후에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성경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자기회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그는 그 역현상(逆現狀)인 자기의 작용에 의해 전류를 만들어내는 연구에 착수하여, 회로(回路)의 개폐에 의하여 제2의 회로에 발생하는 전류, 전자석, 이어 자석에 의한 똑같은 전류를 검토하여 전자기유도를 발견하였다(1831). 이것으로 맴돌이전류와 지구자기(地球磁氣)에 대한 응용에서도 성공

하였으며, 자체유도(自體誘導)를 발견·해석하였다.

페러데이는 이 외에도 많은 과학적 발견을 하였다. 그의 이 전기와 자기가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발견은 훗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E=mc^2$ 의 길을 여는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에너지 개념이 시작된 발견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적 예지(叡智)를 준다. 이미 앞에서 해로를 발견한 매튜 모-리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연구한 결과로 해류를 발견한 사실을 우리는 읽었다. 참된 과학은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에서 그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과학적 사실들을 성경에 미리 쓰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것일 뿐이다.

창조주이신, 여호와라 이를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과학적 발견보다 훨씬 옛날에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가!

## 제6장 건강에 대한 말씀

성경에는 건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지시하고 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며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에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는 애굽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행7:22). 그러면 그의 기록한 글에 애굽의 의학 지식이나 상식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이 보아도 전혀 흡잡을 데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기원전 1552년경에 기록된 애굽의 처방전인 ‘파피루스·에버즈’에는 이런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 “머리가 희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의 기름을 바르라.”

고대의 문명국인 애굽은 당시 의료계의 중심지였다. 그러므로 이 파피루스는 고대의 의학에 관한 기록으로 의료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여긴다.

이 글에는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그것이 빠질 때 한 가지 치료법은 여섯 가지 기름을 섞어서 바를 것이니, 곧 말과 하마, 악어, 고양이, 뱀, 야생 염소의 기름을 섞을 것이며 효과를 강화시키려면 당나귀 이빨을 꿀 속에 갈아서 그것을 바를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 애굽 여왕 ‘쉐쉬’의 특수 미용을 위해서는 아비시니아(구스) 지방 산물인 회색 사냥개의 발목과 하루살이 꽃과 나귀 발통을 꼭 같은 분량으로 기름에 섞어 끓여서 만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 들이 ‘파피루스· 에버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그 책에는 수많은 처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에 인용한 것들만 봐도 얼마나 미신적인 것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

이것이 기록된 연대가 기원전 1552년이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기 한 50년 전쯤이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할 때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이니까, 모세의 나이가 30세정도 되었을 때 기록된 처방전이며 그때는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학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이거나 어쩌면 공부는 이미 끝난 후이다.

그런데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애굽의 그릇된 의술의 내용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과 계시만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나타난 의학적인 사실이 현대 의학에서도 얼마나 사실인지를 몇 가지 예만 살펴보려고 한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문에 건강에 대하여서, 치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계시하실 수 있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1 전염병과 격리

유럽에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문동병으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유럽인들 사이에 만연된 이 가공할 질병에 대하여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공중위생학 교수였던 ‘조지 로즌’ 박사는 “문동병은 중세 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어두움을 던져 주었던 최대의 재난이었다. 기타 모든 질병을 한데 뮤어 봐도 이 병처럼 공포심을 던져주던 것은 없

었다. 14세기의 흑사병이나, 15세기 말의 매독조차도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문둥병은 중세 초기, 다시 말하면 6,7세기에 걸쳐 유럽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빈민들 사이에 만연되어 13,14세기에는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치면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때에 의사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의사는 치료를 위하여 더운 음식과 후추와 마늘과 병든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다고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처방을 했고, 또 어떤 의사는 천체 중에 서로 만나서 좋지 않을 위성(衛星)들이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예방도 되지 않았고 치료도 되지 않았다.

또 14세기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질병은 흑사병(페스트)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네 명 중에 한 명이 흑사병으로 죽어서 600만명 이상의 생명이 이 병으로 희생되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유행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전염병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휩쓸어 대면서 공포와 혼란을 연쇄 반응적으로 일으켰다. 시채들이 갑자기 파놓은 큰 구덩이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졌고, 부패한 시체들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풍굴었다. 무덤을 판 머슴들과 의사가 같은 무덤에 던져졌고 유언한 사람과 상속자들과 유언집행인들이 같은 수레에 실려 와서 같은 구덩이에 함께 던져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만연한 전염이 통제되었는가. 로즌 박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사들이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도적 역할은 교회가 담당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 일을 하는 수밖에 그들에게도 다른 지식이 없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격리시키는 원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는 문등병과의 싸움과 흑사병의 근절을 위하여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환자들을 격리시킨 것이다.

“문등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레13:45,46).

이 말씀은 전염병 환자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따로 지내게 하라는 분명한 지시이다. 그래서 별다른 의학적 지식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실천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문등병의 전염이 멈추었다.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이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역시 환자를 격리시키는 일을 하였다. 결과는 동일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이 구제되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현대 의학이 깨달은 세월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유럽에 문등병이 유행할 때나, 흑사병이 유행하는 그 시절에도 의학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처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인류가 되었을지라도 치유하는 은총을 나타내시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15:26).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은 과학이 발견한 사실보다 아주 오래 전에 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깨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바르게 경배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행복하고 소망 중에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조처를 취해 주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가!-(이상 『고뇌를 극복하는 길』에서 자료를 사용함. S. I. 맥밀런 지음, 문창수 역, 1972년 청암출판사 간).

## 2 할례와 자궁경부암

1900년대 초에 하이람 N. 와인버그 박사는 뉴욕 시내산 병원에서 환자들의 기록을 연구하다가 여자들에게 가장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이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비교적 걸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다. 많은 여인들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이 가공할만한 질병으로 부터 거의 해를 받지 않은 부류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이다.

와인버그 박사의 본을 따라 아이라 I. 캐프린 박사와 그의 동료들도 뉴욕 벨브 병원에서 자기네의 기록을 조사하다가 유대인 여자들이 자궁경부암이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역시 놀랐다.

1948년에 마요 의원의 부인과 의사들은 568건의 자궁경부암 환자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유대인 희생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요 의원에 입원환자 중 7%가 유대인이었

기 때문에 568명 중 약 40명의 유대인 자궁암환자가 있어야 통계가 맞은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1954년에 보스턴에서도 86,214명의 여자들을 검진한 결과 비 유대계 여인의 자궁암환자 수는 유대인 여자들보다 8.5나 더 많았음이 판명되었다.

유대인 여자들의 자궁암이 비교적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이 이유를 연구한 결과 그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그 이유였다. 최근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궁암의 방지는 인종이나 음식이나 환경과 같은 요소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할례 때문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런 연구가 인도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비슷한 인종적 배경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기후와 환경에서 살지만 인구는 두 종교로 나뉘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마호메트교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같은 인종이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그들이 마호메트교를 믿고 할례를 행하는 남편을 가진 여자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여자들보다 자궁암이 아주 적었던 것이다.

이런 연구로 하여 미국 산부인과 기관지(機關誌)의 한 사설은 유대인 여자와 인도의 모슬렘(마호메트교도) 여자들은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과, 유사점이라고는 없는 두 백성이 오직 한 가지 특별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성들의 할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지 섬에서는 자궁경부암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부인들에게는 뚜렷이 낮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갓 난 남자 아이들은 이 암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런 연구의 결과로 1964년 11월에 「미국 의학협회지」의 기사 중에 신생 남자 아이의 할례가 왜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3개월 후에 또 한 사람의 전문가가 11월 기사에 흔쾌히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할례를 시술할 적합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L. 에멧 홀트와 러스틴 메킨토시는 다음과 같은 임상보고를 하였다. “신생아는 생후 2일과 5일 사이에 출혈에 특히 민감해서 이때 출혈하면 과다 출혈할 위험이 높다. 이것은 내부의 여러 기관 특히 두뇌에 중대한 해를 주기 쉽기 때문에 쇼크와 빈혈 때문에 죽음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출혈하기 쉬운 것은 피를 응고(凝固)시키는 주요소인 비타민 K가 5일 내지 7일까지 신생아의 장관(腸管)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 경우 과다 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 가장 합당한 날은 바로 생후 8일째이다. 이날에는 신생아의 장관(腸管)에서 비타민 K가 100%로 생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피를 응고시키는 요소인 응혈소(凝血素)는 『홀트씨 소아과』라는 책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생후 3일째에는 33%만 생성된다. 그런데 생후 8일째에는 110%까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정상인 100%로 돌아간다.

이런 사실이 의학적 임상시험의 결과로 발견된 것이 겨우

1900년대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실이 완전히 고려된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창 17:9-12).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신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다. 아버지가 할례를 받음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돋는데, 특별히 생식과 관련된 부위의 건강을 위하여 할례의 법을 주셨다.

물론 이 할례의 법은 영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의 육체의 건강에 아주 요긴한 조치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할례가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언약의 표를 너희 살에 두라고 하셨다. 즉 건강법을 종교법으로 명하신 것이다. 이유는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고 지시하면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법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명령이 되어야 하겠지만, 육체의 건강에 대한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이다. 할례 자체가 건강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인식된 것은 아주 근래인 1960년대 이지만 하나님은 벌써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셨으며, 더구나 그 실행할 날짜를 난지 8일 째 되는 날로 지적하여 주셨다는 사실이다.

임상시험의 결과로 신생아가 난지 8일째 되는 날, 비타민 K가 100%로 생성되며, 더구나 그날은 응혈소가 110%까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할례를 행하면 가장 출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 할례를 위하여 사용하는 칼이 요즘처럼 예리했는지 알 수 없다.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을 쥐하여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출4:25). 아브라함 때에는 무엇으로 할례를 행했는지 기록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무슨 도구로 할례를 행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 있었을까.

그러므로 할례를 행할 때에 의외로 많은 출혈이 야기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날짜에 할례를 행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그 시대,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현대 의학이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겨우 할례와 할례 날짜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도 환자들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본 후에야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리적 구조를 친히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권고하신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다.

우리 재림성도들은 이 권고를 깊이 기억해야 한다. 오늘 날 진화론이 바탕이 된 교육과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영생을 지켜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마음 깊이 바르게 깨달아 경배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재림성도 부모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일이다. 그 기별의 핵심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경배할 때만 자기의 존재가 확립되는 것이다.

아마도 건강에 대하여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성경에 있을 것이다. 음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결에 대한 것도 그렇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시체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물에서 씻으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한다. 전염병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반드시 씻으라고 가르친다.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앓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앓았던 자리에 앓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

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레15:4-7).

“아론의 자손 중 문동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레22:4-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 칠 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민19:16-19).

이상의 말씀들은 전염성 질병이나, 시체를 만졌을 때에 몸을 물로 씻으라는 말씀들이다. 이것도 종교적 계율로 명령하셨다.

사람들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정도의 말로는 듣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음주와 육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역설을 해도 듣지 않는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조상들도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쳤다. 새 아기가 태어난 집안에 아무 사람이나 함부로 드나들면 부정

탄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직도 면역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기에게 전염성 세균 감염을 예방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신생아의 건강에 해로운 출입을 삼가주세 요라고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빙축이나 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행사처럼 금줄을 치면 부정 타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신생아가 있는 집에 드나드는 것을 삼간다. 그러나 실상은 신생아가 있는 집에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는 위생적 방법인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또는 미신적인 명령과 풍습을 두려워 한다. 이성에 호소하고 사리에 맞은 말로 설명하면 머리는 끄덕여도 실천하는 일에는 아주 느리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와 신앙에 이르면 전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위생에 대한 원리를 종교적 신앙 원리로 지시하신 것이다. 오직 그의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위에 기록된 성경말씀이 바로 정결 위생적인 말씀을 종교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천막을 치고 집단 거주를 하였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 아니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의 읊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렘2:6). 그들이 지나온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기에 알맞은 땅이었다. 그런 땅에서 그들의 건강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지 않으시면 사람 스스로가 건강을 챙길 수 없었고 챙길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위생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명령으로 건강과 위생의 규칙을 발표하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주위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음식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대소변을 아무데나 배설하여 놓으면 그 환경이 어떻게 되겠는가.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13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 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께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신23:12-14).

대소변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면서 위생과 건강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께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여 종교적, 신앙적 계율로 말씀하셨다. 그래야 백성이 준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 원칙이 시행되지 않는 빈민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거든 하물며 지금부터 3,500 여 년 전의 사람들이야 어땠겠는가. 그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중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사실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을 상기시키기를 원하였다.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신8:4).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3).

만나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건강과 기력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음식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싫다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육식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육식을 허락하셨으나 그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 벌써 병들고 많이 죽었다. 이 사실을 시인은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발하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시78:29-31).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여 그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그들의 탐욕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의 죽음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마셨으면 건강하고 안전하였을 것인데 저희 욕심대로 고기를 탐하다가 병들어 죽였다는 말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이지만, 그것은 곧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진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의 건강과 위생을 철저히 쟁기셨다.

### 3 몸을 씻어라

그런데 전염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씻을 때에 병균의 전염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알게 된 것은 겨우 1847년이었다. 그때서야 전염병 환자를 만진 의사들과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을 처음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장 실시되고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규칙을 세운 의사를 내어 쫓았다. 그러니 성경의 위생관념은 가히 초인적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명령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1840년대 초에 ‘이그나츠 세멜바이스(I. Semmelweis)’는 비엔나의 유명한 병원인 ‘알레케마이네 크랑켄하우스’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는 의사였는데, 그 병동에서 죽어나가는 환자들은 반드시 선생들과 학생들에게 검사를 받은 여자들인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3년간이나 이 가슴 아픈 상황을 관찰한 후에, 한 가지 규칙을 정하였는데, 검시(檢屍)에 참여한 의사들과 학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산과 병동의 환자들을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74년 4월에 이 새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57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죽어나갔는데, 규칙이 제정되고 실시된 후에는 6월에 42명의 환자 중에 한 사람 꼴로 죽었고, 7월에는 84명의 환자 중에 한 사람 꼴로 죽었다. 즉 치명적인 감염은 시체로부터 살아 있는 환자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귀찮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세멜바이스는 그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폐기되었으며 환자들의 치사율을 전과 같이 되고 말았다. 세멜바이스는 그 후 그의 고향인 부다페스트의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임신부들의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았다. 그는 거기서도 손 씻는 규칙을 시행하게 하였더니 역시 치사율은 아주 낮아졌다. 그러나 그 병원 의사들도 비엔나 병원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나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관찰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수한 증거 문서를 저술하였으나 이것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을 더욱 자극하여 그가 병원에 발불여 일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 씻는 규칙은 세멜바이스 후에 즉시 병원들에 실시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이것이 의사 사회에 실시된 것은 1878년에 와서야 비로소 손과 의료 기구를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소개되고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모든 병원이 이 일을 실천하게 되었다. 1953년 포도상 구균 감염이 씻지 않은 손 때문에 생겨서 미국 동부의 어떤 종합 병원에서 87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뉴욕주립위생소’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1960년에 비로소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책을 발행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이미 이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세상 과학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한 후, 1960년에 와서야 겨우 이 사실을 깨닫고 해결을 보게 된 것이다.

이미 앞서도 말했듯이 의사라고 하면 지성인들이며 학문이 있는 교양인들이다. 그들도 손 씻는 일을 그렇게 귀찮게 여겼다. 그것이 인명과 관계되는 것을 통계로 보면서도 그랬다. 그렇거든 3500여 년 전의 사람들의 생활상으로는 단순하게 위생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했겠는가. 그래서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종교적 규율로 명하신 것이다.

참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신체의 모든 구조와 기관과 그 건강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가 우리의 신체를 조직하셨기 때문이다(시139:13-15).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벌써 그 옛날에 이런 명령을 주셨다. 하물며 현대의학이 1960년에 와서야 겨우 깨달은 그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벌써 그때 가르쳐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확실한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원리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라 이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생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세멜바이스 의사의 노력이 거절당할 뿐 아니라 의사 사회에서 당한 소외감에 고민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사후에 그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인식한 의학계가 그를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딴 병원도 세우고, 세멜바이스 상도 제정하였으며, 그의 고국 헝가리에서는 수백만의 산모를 살려낸 산모의 수호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멜바이스가 성경에서 그 빛을 얻은 것 같지는 않지만 성경은 세멜바이스보다 3000년 전에 그 방법을 계시해 놓았다. 누가 과학적이며 무엇이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이 아닌가. 성경의 하나님아 아니신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144:15).

## 제7장 역사 예언과 그 성취

성경은 예언서라고 한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세상의 장래를 예언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미리 계시해 주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할 때에 세상의 역사적 현장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업과 세상의 나라들의 이해가 어떻게 충돌되고 협력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것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며, 그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역사적 진행을 미리 다 보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 말씀과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사실 중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글의 논의를 마칠까 생각한다.

### 1 예언과 신앙

성경에는 하나님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계시한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둘째는, 예언의 하나님으로 역사의 주

셋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이다.

이런 계시의 주목적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님

이심을 사람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는 셋째를 확증하기 위하여 계시하신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범죄하고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그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창조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즉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있게 되었다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재창조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이니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 곧 재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권고인 것이다.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써 말씀하신 것이다. 즉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것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성경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겠다고 말씀한 모든 것도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아주 잘 믿는다.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성질을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하게 하여 사람들로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려는 뜻으로 예언을 주신 것이다.

즉 역사의 현장이라는 실험관에 예언이라는 재료를 넣고 실험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거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14:29).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셨다. 그 예언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을 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 제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부를 증명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명을 모르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확증을 가지고 믿는 것보다 논리가 결여될 수 있다. 물론 신앙은 논리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논리는 연구하여 깨닫고 따르는 것 자체가 또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으라고 한다. 그 예언의 지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파선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전1:18,19).

성경 예언의 중심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이다. 이것은 창세기 3:15에 분명히 계시하고 그 계시의 내용을 역사를 따라 점점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확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이미 말한 대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면 그 구원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나라들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셨다. 그것이 나라들의 역사적 사건 예언인 것이다.

이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말씀들 중에 몇 가지 예언과 그 성취를 살펴보도록 하자.

## 2 예언과 역사

이 나라들의 역사적 사건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그 말씀과 「이사야서」에 나타난 사실을 역사에서 성취된 사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도움을 얻도록 하자.

### 1)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하여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사44:26-28).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도 나는 네 땅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45:1-6).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680년경까지 선지자로 봉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위에 기록한 고레스가 유다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며, 성전 중건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고레스는 통일 페르시아의 영주(英主)로서 기원전 539년이 그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세계적 제국의 왕으로 재위한 원년이다. 그러나 그가 안샨 왕이 된 해는 기원전 559년이며 550년에는 메디아를 통합하고 546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하였으며 드디어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하여 명실상부한 대 제국의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 때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스1:1).

아무튼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기원전 539년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을 예언한 것이다. 이사야가 기원전 680년경에 죽었는데, 만일 그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해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약 150년쯤 전이다. 그러나 이 예언을 어떻게 그가 죽던 해에 했겠는가? 그가 기원전 740년경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는데 만일 기원전 700년경에 이 예언을 했다고 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160년쯤 전에 예언한 것

이다.

이 예언에는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사44:27)는 내용이 있다.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작전을 보면 이 예언을 그대로 실행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은 경과되고 그 성(바벨론)에 대한 진격을 시도할 수 없게 되자, 고레스는 커다란 당혹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번민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궁리한 것인지 모르는 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유프라테스)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그의 군대를 배치시켰고 강이 서편으로 흘러나가는 지점에도 군대를 배치하여놓고, 물이 건너가기에 족할 만큼 얇아지자마자 강바닥을 통해 진군해 들어가라고 명령해 놓았다. 그런 다음 자신은 그의 군대 중에 비전투 인원들을 데리고 철수하여, 전에 니토크리스가 이 강을 위해 파놓은 분지를 향해 진군했는데, 거기서 그는 니토크리스가 한 것과 똑같이 수로를 통해 당시 높지였던 그 파놓은 분지로 강물이 흘러들어가도록 유프라테스를 돌려놓아서 본래의 강바닥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을 낮아지게 했다. 이쯤 되자, 이 목적을 위해 바벨론의 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페르시아 군인들은 강물이 사람의 넓적다리 중간쯤에 아를만큼 잣아지자 강물로 들어섰으며, 그리하여 성 안으로 들어갔다. … 성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성의 중앙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성의 외곽 부분이 함락되고 난지 오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

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기까지 춤추고 흥청거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잔치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처음으로 함락당한 때의 사정이다.”(Herdotus, Persian War, Bk. 1, chs. 190,191)

이 글을 읽어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44:27과 대조해보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위하여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고레스가 강물을 마르게 하여 바벨론 성을 점령할 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실을 묘사했는가!

이뿐만 아니다. 4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4절). 고레스라는 그의 이름을 이미 예언에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질 것을 아시고 예언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다고 하셨다.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시고 그의 칭호까지 기록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느낌이 어떠했겠는가.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 않겠는가.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또한 다니엘서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

라”(단1:21)고 기록하였다. 다니엘은 포로 된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총리의 직무를 행한 정치가였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2년 동안 바벨론 통치를 맡겼다.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을 등용하여 그가 통치하는 120도의 총리를 삼았다. 그 후 고레스 3년까지 페르시아에 있었다(단 10:1). 그런데 1장 21절에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고레스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레스가 정복하는 전쟁을 끝내고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 원로 정치가를 불렀을 것이다. 그런 기회에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갔겠는가. 독자들이 그런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반드시 왕에게 알려줄 귀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기회에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는 왕 앞에서 이사야 44장 26절부터 45장 6절까지 아니 그 이상을 읽어주었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듣는 고레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얼마나 흥분되고 울렁거렸을까.

‘와, 그 옛날에 내 이름이 벌써 책에 기록되다니! 아, 내가 바벨론을 강물을 말려서 정복할 사실을 예언해 놓다니! 이런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그의 조서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기쁘게 명령한 것이다. 이 사실이 에스라 1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  
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  
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  
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  
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  
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줄거이 드릴지  
니라 하였더라”(스라 1:1-4).

이 말씀을 읽어보니 고레스가 다니엘을 만나서 이사야서  
의 예언을 들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의  
조서에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읽었다. “바사 왕 고  
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  
니”(스1:4)라고 분명히 조서에 썼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의 예언에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것은 그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지  
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  
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  
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  
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믿는 복된 백성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일찍부터 익숙하도록 가르쳐  
야 한다. 그래서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라 이

를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겨 기억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 2)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예언

다니엘서는 유대 나라 주변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이어 간 세계적 제국들의 흥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이다.

흔히 사람들은 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은 예언에 등장하지 않았느냐고 항의조로 묻는다. 그것은 성경 예언의 성질을 몰라서 묻는 말이다.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미리 알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일할 민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영향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해도 구원의 역사에 별 관계없는 나라의 역사는 예언에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는 이런 나라들의 성질과 행사가 상징적으로 잘 예언되어 있다. 그것을 이 글에서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간단히 증거하는 내용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기원전 605년경에 십대 후반의 청년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바벨론 왕궁 장학생으로 뽑혀 3년을 공부하고 왕의 고문단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 2년에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석하는 일을 필두로 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니엘서를 기록하였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본 계시의 내용이고 8장은 벨사살 3년에 본 계시이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 그의 13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였다. 벨사살 원년은 기원전 553년경이며, 벨사살 3년은 551년경이다. 벨사살 3년에 본 8장의 내용에는 상징적으로 나라들의 흥망을 예언할 뿐 아니라, 그 나라들의 실제 이름을 말하면서 예언한다. 이 사실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다니엘 8장은 페르시아의 등장과 멸망, 그리고 헬라의 등장과 분열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 바벨론은 벨사살 13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므로 벨사살 3년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되기 약 12년 전이다. 그 때 다니엘은 바벨론을 정복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정복할 나라는 헬라라고 그 이름을 밝혀 예언하였다.

“네가 본 바 두 뿐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

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단8:20-22).

페르시아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볼 때부터 12년쯤 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될 것이다. 이 연대쯤은 국제정치에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국내 사정과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페르시아의 정치적 역량을 보면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헬라는 어떤가?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적 제국이 된 것은 기원전 331년경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계시를 볼 때인 기원전 551년부터는 220년 후의 일이다. 아무리 시세와 세계정세에 밝은 사람이라도 220년 후에 세계를 제패할 나라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예언은 할 수 없다.

역사는 과연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정복되었고, 기원전 331년에 페르시아는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정복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예언은 더 정밀한 사실까지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다니엘 8장 21절, 22절의 말씀이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표상으로 보여준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의 첫째 왕이라고 했다. 곧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예언이다. 그리고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네ট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단8:8)고 예언한다. 즉 알렉산더가 한창 강성할 때 갑자기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말라리아의 일종인 습지열이라는 병으로 죽었다. 그는 겨우 1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온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한창 나이에 죽게 된 것이다.

그의 임종 병상 주위에 그의 휘하 장군들이 모여서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은 결국 그의 장군들이 누가 강한 자인지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 강한 자가 제국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의 사후 12년간 내전을 겪은 후에 그의 휘하의 장군이었던 네 사람이 알렉산더 제국의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 하나씩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 왕이 되어 다스렸다. 그들이 곧 셀류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데르, 프톨레마이오스 등이다. 셀류쿠스는 시리아를 리시마쿠스는 마케도니아를 카산데르는 헬라 반도를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을 차지하여 헬라는 네 나라가 되었다.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네 나라가 된 때가 기원전 301년이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부터 자그마치 230년 후이다.

나는 채림교회로 옮긴 후에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꺼운 서양서 책을 두 권이나 찾아 확인하고 놀랐다.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 역사가 이렇게 자세히 예언된 사실을 알았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원래 장로교인이었다. 3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장성하여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믿느냐고 대들었을 때 합리적으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여 당황한 일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고 확인한 후에는 당당히 대답할 말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13:1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14:29).

성경은 참으로 진리의 책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고는 이렇게 미리 역사를 말씀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확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고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은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창조자를

경배하며 사는 것이다.

세상이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세 천사의 기별,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다.

우리교회는 이 기별을 전하는 참 교회, 곧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배하므로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의 교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진리의 사람들로 이끌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무쪼록 이 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일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확신을 기초로 견고한 터를 구축한 그 위에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여러 요소들인 진리를 쌓아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작은 길잡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고하며 이만 봇을 놓는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기를 기도 드린다.

2006년 5월 1일